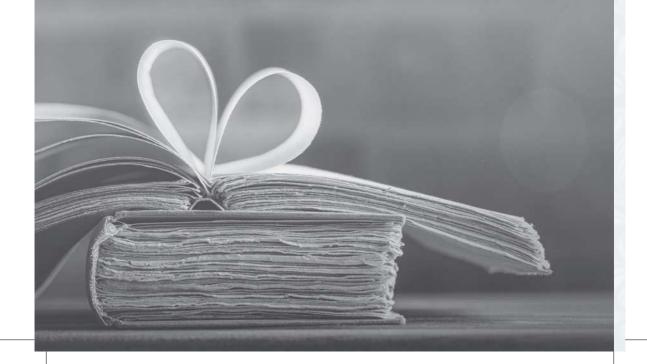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CINNA

No faithful suffering is wasted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Dear Lord 주님,

From February 2022, 2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Pleasant Hill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1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③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화요일·Tue
11
2022 JANUARY

노아가 함을 저주하다

Noah cursed Ham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배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7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생물을 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악을 노이와 맺으시며 그 증거로 무지게를 구름 사이에 보여주셨 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먼고 잠든 자신의 모습을 목격 한 아들 '함'을 저주하여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하였습니다.

● 세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국상·창세기 9:20-27 │

3 등록·창세기 9장

20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7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 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²³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 음처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 더라

²⁴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 을 악고

²⁵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 의 종이 되기를 워하노라하고

²⁶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 안은 셈의 종이 되고

²⁷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 였더라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Noah, who worshipped God with burned offerings, was blessed by God to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God made a covenant with Noah to never again destroy living creatures with a flood and as proof showed the rainbow in the cloud. Noah was drunk with wine and fell asleep and his naked body was exposed to his son, Ham, whom Noah cursed to be slaves of his horthers

月 Hymn 393 Great is Thy Faithfulness

Modernian Genesis 9:20-27

Reading Plan • Genesis 9

²⁰ Noah began to be a man of the soil, and he planted a vine-yard.

21 He drank of the wine and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 his tent.

²² And Ham, the father of Canaan, saw the nakedness of his father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23 Then Shem and Japheth took a garment, laid it on both their shoulders, and walked backward and covered the nakedness of their father. Their faces were turned backward, and they did not see their father's nakedness.

²⁴ When Noah awoke from his wine and knew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rm 25}$ he said, "Cursed be Canaan; a servant of servants shall he be to his brothers."

26 He also said,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27 May God enlarge Japheth, and let him dwell in the tents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Engo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와 이에 함
께 경고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3-4절)
What was the food given by
God and the accompanying
warning? (9:3-4)

경고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 해 보십시오. (5-6절)

Please meditate deeply on the meanings contained in the warning. (9:5-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택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2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당 국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처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중일 더 깊이 목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업자를 위한 기도 Payer for Courobe & Pasturs 영커리지한안한감리교회, 금안재AK/ 기름의 교회, 장준식(AL) 한안송회, 한인교회 · 天동체를 위한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새해의 소망 VS 믿음 Hope and Faith in the New Year

2022년 새해의 첫 날 입니다. 2020년도 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첫 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팬데믹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재정적 상황 등, 과거 보다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요. 여러분도 새해를 향한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말씀"으로 참조하시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언약이자 반드시 이루어질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업리, 뜻, 계획'이자, 사람들의 그것과 는 분명 다름 것입니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겠지만 만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 '업리, 뜻, 계획'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음이란 창세기 1장1절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만으며 이 믿음 위에서 싫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만음이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새해의 소망을 구하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2022. The pandemic which began in 2020 changed our lifestyle but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still brings us new expectations and hope. We expect a better future than the past and make wishes like the end of the pandemic coming soon, good health for family members, good conditions at children's schools, good financial conditions for family, etc. I can guess that you all have y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for the new year. Did God also have His own expectations and hopes as He created the world with His "Word"?

God's Word by itself is the promise and the command that would be fulfilled with certainty. Therefore,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God, that is,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would clearly be different from those of humans. O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we may have a myriad of 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but as believers we must first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our Lord -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 because our faith is built on Genesis 1:1. Unless we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in life based on our belief in the Word, "God created the world," our faith will eventually be shaken. I pray that we begin the new year today by seeking hope in the new year based on our faith in the Word.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기쁨의 언덕으로]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문제없다

▲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 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찬송, 기도

✔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 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이떻게 읽을까?

☑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 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 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에구리된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 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 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합니다!

1 언제가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 모임장소Tip!

기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②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2 February

02

기쁨의 언덕으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주요일정

SUNDAY	MC	INDAY	TU	ESDAY
			1	창세기 Genesis 27장 □
6	7	창세기 Genesis 32장 □	8	창세기 Genesis 33장 □
13	14	창세기 Genesis 38장 □	15	창세기 Genesis 39장 □
20	21	창세기 Genesis 44장 □	22	창세기 Genesis 45장 □
27	28	창세기 Genesis 50장 □		

WED	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	창세기	3 청세기	4 충세기	5 청세기
	Genesis	Genesis	Genesis	Genesis
	28장 □	29장 □	30장 □	31장 □
9	창세기	10 청세기	11 충세기	12 창세기
	Genesis	Genesis	Genesis	Genesis
	34장 □	35장 □	36장 □	37장□
16	창세기	17 청세기	18 청세기	19 청세기
	Genesis	Genesis	Genesis	Genesis
	40장 □	41장 □	42장 □	43장 □
23	창세기	24 청세기	25 청세기	26 청세기
	Genesis	Genesis	Genesis	Genesis
	46장 □	47장□	48장 □	49장□
			O1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3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창세기 2/2

창세기란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의 히브리어 첫 단어는 베레쉬트('태초에')이고, 유대인들은 성서의 첫 단어로 그 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創世記, Genesis, 기원, 시작)라는 말은 희랍어 70인역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한글 성경의 창세기란 이름은 한문으로 옮긴 희랍어 번역본에서 시작되었고, 세상이 지어질 때의 기록이란 뜻입니다. 창세기는 본래 구약 성경의 첫 다섯 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묶여 있었는데, 그 분량이 많아 유대인들이 다섯 두루마리로 나누면서 '오경(五經)'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히브리 이름은 '토라 - 율법서'입니다. '토라'의 정확한 의미는 '바른 가르침, 지켜야 할 도리'이기도 하니,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의 첫째 권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바른 가르침과 삶의 도리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창세기는 모세가 써서 전해주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가 포함된 오경 전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과 그분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창세기 17장에나오는 할례의 규례를 모세가 준 율법이라고 말씀하셨고(요한복음 7:23), 창세기 50:10-11에 나오는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을 통해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성서학자들은 모세오경을 비교하면서, 글체나 단어, 시대 배경이 다른 여러 글이 모아져 지금의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역시 여러 시대에 걸쳐, 몇 가지 구전 자료와 다수의 편집인을 거쳤다고 추측됩니다. 창세기의 편집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진 창조 이야기를 기원전 14~10세기부터 글로 옮겼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공동체가 기원전 450~400년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직접 받은 모세나 후세의 기록자들모두 모세의 전승(권위)에 입각해서 창세기를 옮겨 적었기에, 여전히 창세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술작품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 대상의 시작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더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먼저 만물이 창조자에 의해 지어진 것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알 것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했던 분에 의해 다시 갱신되어야 하는말씀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단지 과거에 있었던우주, 세상, 인류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창조되는 이 우주와 인류의 모습을 깨닫도록 씌여진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문자로 된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읽어야할 것입니다. 이 영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며 그본질은 바로 진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통해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며, 그 말씀의 정수이시며, 이 세상에 직접 오신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창세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

나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 말씀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며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역사를 끝낼 가능성을 보여주는 창세기

천지창조라는 거대한 역사로 시작된 창세기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실패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타락(3장), 홍수(7장), 바벨탑(11장) 등 3연속 실패가 이어집 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하실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그 실패의 역사를 끝낼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12장 이후 기록된이스라엘의 족장의 역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우주와 인류 창조의 이야기로 읽는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존 하틀리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과정을 계시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창세기를 통한 이 계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과 사건에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신 기록이기에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투성이 사람을 축복의 대리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을 이루셨고 궁극적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계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 삭과 그 다음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의 열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의 비열한 행동을 통해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형제들이 악의를 가지고 행한 행동은 하나 님에 의해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에서 큰 권세에 오른 요셉에 의해 끔찍한 기근으로부터 구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때로 실수했고 심지어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음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를 덮어 주거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사실을 전혀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졌지만,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 따르기를 주저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때로 넘어짐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약속의 성취를 고대하는 영적 거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신뢰를 통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의 새로운 자손들인 우리 역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의 대리자로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창세기의 구조

역사 이전의 원시역사 1-11장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 12-50장	인물의 특징
① 창조(창 1-2장)	① 아브라함(창 12장-25:8)	믿음의 조상
② 인류의 타락(창 3-5장)	② 이삭(창 21장-35:29)	묵상하는 사람
③ 대홍수(창 6-9장)	③ 야곱(창 25:21-50:14)	갈급한 인생
④ 바벨탑과 분산(창 10-11장)	④ 요셉(창 30:22-50:26)	구원과 축복의 통로

참고도서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마틴 로이드 존스 / 복있는사람) UBC 창세기 (존 하틀리 / 성서유니온선교회), 구약개론 (월터 브루그만 / 기독교문서선교회) 뉴인터프리터 스터디바이블 (애빙돈), 공동번역 성서해설 (일과 놀이)

2022 February

옳은 방법으로

The right wa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야곱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을 첫째 아들이라고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에서는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밧단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 새90장(통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묵상·**창세기 27:1-10**

통독·창세기 27장

- 1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만 아들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 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 ²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 3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 4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 5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 6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 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 기를
- 7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 8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 9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 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 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 10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Reading Insight

Jacob received the blessings of the firstborn by lying to his father Isaac who, because of old age, was almost blind. Once Esau found out, he decided to kill Jacob out of anger but their mother Rebeca having overheard Esau helped Jacob escape to his uncle in Paddan Aram.

Hymn 90 I've Found a Friend

Meditation • Genesis 27:1-10

Reading Plan • Genesis 27

- When Isaac was old and his eyes were dim so that he could not see, he called Esau his older son and said to him, "My son"; and he answered, "Here I am."
- 2 He said, "Behold, I am old; I do not know the day of my death
- 3 Now then, take your weapons, your quiver and your bow, and go out to the field and hunt game for me,
- 4 and prepare for me delicious food, such as I love, and bring it to me so that I may eat, that my soul may bless you before I die."
- 5 Now Rebekah was listening when Isaac spoke to his son Esau. So when Esau went to the field to hunt for game and bring it,
- 6 Rebekah said to her son Jacob, "I heard your father speak to your brother Esau,
- 7 'Bring me game and prepare for me delicious food, that I may eat it and bless you before the LORD before I die.'
- 8 Now therefore, my son, obey my voice as I command you.
- 9 Go to the flock and bring me two good young goats, so that I may prepare from them delicious food for your father, such as he loves.
- 10 And you shall bring it to your father to eat, so that he may bless you before he di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시킨 일은 무엇인가요? (27:8-10) What did Rebeca order Jacob to do? (27:8-10)

리브가가 했던 행동이 결국에는 야 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 해 봅시다.

Let us meditate on how the deeds of Rebeca influenced Jacob in the end.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 주활(CO) 덴버연합감리교회, 이선영(CO) 목회자를 위한 기도

옳은 방법으로 The right way

아이가 없어 근심하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쌍둥이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25:23).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그 당시 관습은 물론 오늘 우리의 문화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둘째 대신, 첫째 에서를 불러 장자의 복을 약속 하는데 이는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이 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리브가는 남편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야곱에게 첫째의 옷을 입히고 그의 팔에 염소 새끼 가죽을 덮어 털이 수북한 에서의 팔처럼 만들어 이삭을 속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그 방법이 옳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였지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랑하였고 이로 인해 후에 더 큰 시련을 가져오게 됩니다. 온 정성으로 내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 되. 옳은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saac and Rebeca were concerned and anxious because they did not have any children, but God blessed them with twins. God told them,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Gen 25:23). The older serving the younger was not only nontraditional at the time of Genesis but also is unusual in our culture as well. Isaac had a similar mindset. As Isaac was getting old and losing vision, he called the older son instead of the younger to be blessed with the firstborn privilege. This was against the will of God who wanted Jacob to be the heir.

Having accidentally overheard the conversation between Isaac and Esau, Rebeca wanted to block Isaac's plan and follow the will of God. But she deployed deceit and lies. She put the older son's clothes on the younger son, wrapped the younger one's arms with goat skin leather to make them feel hairy like Esau, and deceived Isaac.

Rebeca wanted to follow the will of God but her method was not right. She loved her son but her method of love was not righteous and later caused more hardship for Jacob. I pray that we would love our children with all our hearts but also in a righteous wa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 기厂 ::+ D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수요일·Wed 02

2022 February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I did not know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이삭은 야곱을 불러 가나안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하지 말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고 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밧단아람으 로 가던 중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벧엘이라 부르게 됩니다.

♬ 새490장(통542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묵상·창세기 28:10-22

통독·창세기 28장

- 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라으로 향하여 가더니
-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 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 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 17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 19 그 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 더라
- 2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 ²¹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 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Reading Insight

Isaac called Jacob and told him not to marry a Canaanite woman but to take a wife from among the daughters of Laban. Jacob left home and on his way to Paddan Aram he met God in a dream and called the place Bethel meaning "House of God."

🎵 Hymn 490 There's a dream that I dream

Meditation • Genesis 28:10-22

Reading Plan • Genesis 28

- 10 Jacob left Beersheba and went toward Haran.
- 11 And he came to a certain place and stayed there that night, because the sun had set. Taking one of the stones of the place, he put it under his head and lay down in that place to sleep.
- 12 And he dreamed, and behold, there was a ladder set up on the earth, and the top of it reached to heaven. And behold, the angels of God were ascending and descending on it!
- 13 And behold, the LORD stood above it and said, "I am the LORD, the God of Abraham your father and the God of Isaac. The land on which you lie I will give to you and to your offspring.
- 14 Your offspring shall be like the dust of the earth, and you shall spread abroad to the west and to the east and to the north and to the south, and in you and your offspring shall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 15 Behold, I am with you and will keep you wherever you go, and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For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 16 Then Jacob awoke from his sleep and said,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and I did not know it."
- 17 And he was afraid and said, "How awesome is this place! This is none other than the house of God, and this is the gate of heaven"
- 18 So early in the morning Jacob took the stone that he had put under his head and set it up for a pillar and poured oil on the top of it.
- 19 He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Bethel, but the name of the city was Luz at the first.
- **20** Then Jacob made a vow, saying, "If God will be with me and will keep me in this way that I go, and will give me bread to eat and clothing to wear,
- 21 so that I come again to my father's house in peace, then the LORD shall be my God,
- 22 and this stone, which I have set up for a pillar, shall be God's house. And of all that you give me I will give a full tenth to you."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을 약 속 하셨나요? (28:13-15) What did God promise to Jacob? (28:13-15)

야곱은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 하였 나요? (28:21-22) What did Jacob vow to God? (28:21-2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여기가 곧 벧엘입니다 This place is Bethel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야곱. 그는 분개한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고 홀로 집을 나선 야곱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결국 길가에 놓여있는 돌베개를 벗 삼아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13~15). 불안과 근심에 놓여있는 야곱에게 주신 천금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삭과 야곱의 때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거하심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잠이 깬 야곱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16).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 이곳이 곧 벧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Jacob received the blessing that was due to the firstborn, which angered his older brother, and escaped to his uncle Laban. Running away alone from his beloved family and exhausted mentally and physically, he lay down on the roadside and fell asleep on a stone pillow. In his dream while sleeping, Jacob met God, "I am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I am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 I will not leave you ··· " (28:13–15). Those are precious covenants like heavenly gold that God gave to Jacob who was filled with worry and anxiety.

At the time of Abraham and Isaac, and even for us today, our LORD was and is always where He is. We simply are not aware of where He is. Awaking from his sleep, Jacob confessed,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and I was not aware of it" (28:16). Our LORD is in this place and therefore this place is Bethel (House of God).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전병욱(CO) 푸에블로한인교회, 최윤선(CO)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429·Thu

2022 Februar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은 야곱

Jacob Marries
Leah and Rache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라반을 만난 야곱은 그의 딸들과 만나게 되고 그중 둘째 라헬과 혼인을 하기 위해 라반을 칠 년 동안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언니 레아를 주었고, 라헬과 혼인하기 위해서는 칠년을 더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다시 칠년을 섬깁니다.

♬ 새272장(통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묵상·창세기 29:15-27

통독·창세기 29장

- 15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 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푺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 16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 17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 18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 19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 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 **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 21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 22라반이 그곳사람을 다모아 잔치하고
- 23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들어가니라
- 24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 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 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 26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 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

Reading Insight

Jacob met Laban and his two daughters. In order to marry the younger daughter Rachel, Jacob promised Laban that he would work for him for seven years. But Laban cheated Jacob and gave his older daughter Leah instead. Jacob ended up working for Laban another seven years to marry Rachel because he loved Rachel

月 Hymn 272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Meditation • Genesis 29:15-27

Reading Plan • Genesis 29

- 15 Then Laban said to Jacob, "Because you are my kinsman, should you therefore serve me for nothing? Tell me, what shall your wages be?"
- 16 Now Laban had two daughters. The name of the older was Leah, and the name of the younger was Rachel.
- 17 Leah's eyes were weak, but Rachel was beautiful in form and appearance.
- 18 Jacob loved Rachel. And he said, "I will serve you seven years for your younger daughter Rachel."
- 19 Laban said, "It is better that I give her to you than that I should give her to any other man; stay with me."
- **20** So Jacob served seven years for Rachel, and they seemed to him but a few days because of the love he had for her.
- 21 Then Jacob said to Laban, "Give me my wife that I may go in to her, for my time is completed."
- 22 So Laban gathered together all the people of the place and made a feast.
- 23 But in the evening he took his daughter Leah and brought her to Jacob, and he went in to her.
- **24** (Laban gavehis female servant Zilpah to his daughter Leah to be her servant.)
- 25 And in the morning, behold, it was Leah! And Jacob said to Laban, "What is this you have done to me? Did I not serve with you for Rachel? Why then have you deceived me?"
- 26 Laban said, "It is not so done in our country, to give the younger before the firstborn.
- **27** Complete the week of this one, and we will give you the other also in return for serving me another seven year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라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은 무엇입 니까? (29:15-20) What was Laban's promise to Jacob? (29:15-20)

라반은 야곱과 한 약속을 어떻게 어겼으며, 약속을 어긴 이유는 무 엇일까요? (29:21-27)

How did Laban violate the promise with Jacob and what was the reason for the violation? (29:21–2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속고 속이는 삶 Life is to cheat and to be cheated

거짓과 속임수로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밧단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라반의 둘째 딸과 혼인을 약속하게 되는데 그 조건은 칠 년간 라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29:20). 칠 년의 기다림 끝에 야곱은 라헬과 혼인을 하여 동침을 하게 되는데 옆에 있던 여인은 라헬이 아닌 큰 딸 레아라는 것을 이튿날이 되어야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 따져보지만, 라반은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을 보내는 것은 고장의 법이 아니라는"(29:26)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번에는 도리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 칠 년을 허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반 드시 또다른 거짓을 낳고 속고 속이는 인생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습니 다. 이 야곱의 시련은 그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며 은 혜입니다.

Jacob received the blessing of the firstborn by cheating his brother and ran away to his uncle Laban in Paddan Aram. At Paddan Aram, he made a deal with his uncle Laban that he would work for Laban for seven years to earn the right to marry Laban's younger daughter. Then after seven years, Jacob thought that he had married Rachel and slept with her on the wedding night. The next morning he awoke to learn that instead he slept with Leah, the older daughter, not Rachel. Upset, Jacob protested to Laban but Laban replied, "It is not our custom here to give the younger daughter in marriage before the older one" (29:26). That was the excuse but it was unacceptable to Jacob.

Having cheated Esau and received the blessing of the firstborn, Jacob this time was cheated by Laban and ended up wasting seven years. Cheating and lying engenders more cheating and lying and life turns into a cycle of "to cheat or to be cheated." The hardship of Jacob is the providence and grace of God to awaken him.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한미연합감리교회, 한동수(CO)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 최영(CT)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22 February

야곱과 라반의 협정

The Deal between Jacob and Lab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녀를 갖게 하십니다. 동생 라헬은 이를 시기하여 여종을 통해 자녀를 갖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아들(요셉)을 낳게 됩니다. 한편 야곱은 라반과의 흥정을 통해 큰 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 새546장(통399장) "주님 약속 하신 말씀 위에서"

묵상·창세기 30:25-36

통독·창세기 30장

- 25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고향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 26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 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 거든 그대로 있으라
- 28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 29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 30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나는 언제나내 집을 세우리이까
- 31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 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 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 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 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 리이다
- 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 34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 35 그 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 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 36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 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Reading Insight

God is aware of Leah not being loved by Jacob and blessed Leah with a child. The younger daughter Rachel was jealous and made her maidservant sleep with Jacob to bear a child but the grace of God allowed her to have her own son (Joseph) later. Jacob meanwhile made a deal with Laban, profited greatly and became rich, and started preparations to return home.

Fig. Hymn 546 Standing on the Promises

Meditation · Genesis 30:25-36

Reading Plan • Genesis 30

- **25** As soon as Rachel had borne Joseph, Jacob said to Laban, "Send me away, that I may go to my own home and country.
- **26** Give me my wives and my children for whom I have served you, that I may go, for you know the service that I have given you."
- 27 But Laban said to him,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sight, I have learned by divination that the LORD has blessed me because of you.
- 28 Name your wages, and I will give it."
- 29 Jacob said to him, "You yourself know how I have served you, and how your livestock has fared with me.
- **30** For you had little before I came, and it has increased abundantly, and the LORD has blessed you wherever I turned. But now when shall I provide for my own household also?"
- 31 He said, "What shall I give you?" Jacob said, "You shall not give me anything. If you will do this for me, I will again pasture your flock and keep it:
- 32 let me pass through all your flock today, removing from it every speckled and spotted sheep and every black lamb, and the spotted and speckled among the goats, and they shall be my wages.
- 33 So my honesty will answer for me later, when you come to look into my wages with you. Every one that is not speckled and spotted among the goats and black among the lambs, if found with me, shall be counted stolen."
- 34 Laban said, "Good! Let it be as you have said."
- 35 But that day Laban removed the male goats that were striped and spotted, and all the female goats that were speckled and spotted, every one that had white on it, and every lamb that was black, and put them in the charge of his sons.
- 36 And he set a distance of three days' journey between himself and Jacob, and Jacob pastured the rest of Laban's flock.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야곱이 라반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요? (30:31-33)

What did Jacob ask from Laban? (30:31-33)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수락한 뒤에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30:34-36)

Upon accepting Jacob's proposal, what did Laban do afterward? (30:34-3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새생명교회, 신승호(CT)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 김정환(CT)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약속대로 As promised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야곱의 열망은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것은 떠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떠날 때는 혼자 떠나왔으나 이제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반을 설득하여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아 내는 것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야곱은라반의 비열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승낙할 만한 제안을 하게됩니다. 검은 염소와 흰 양 사이에 태어난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 만을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단색의 짐승들에게서 다색의 짐승을 번식시켜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유리해 보이는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늘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던 야곱은 속임수를 쓰지 않고, 라반과 협상한 조건들을 성실히 지키는 것만으로 라반의 허를 찌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다색의 양과 염소 무리가 라반의 것보다 더욱 많아졌을 뿐 아니라 더욱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우세한 이 세상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약속으로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Jacob's desire to return home intensified as Rachel bore a child. But returning home was more difficult than leaving home. When he left his hometown, he was alone but now he has a family. The task of persuading and receiving a fair share of his possessions from Laban was also a worrisome problem. Since Jacob was well aware of how mean Laban was, he knew that he had to come up with a proposal that was acceptable to Laban. Jacob proposed to take as his wages only every speckled and spotted sheep, every dark-colored lamb, and every spotted or speckled goat. Jacob proposed to take as his wages "only spotted or speckled sheep" borne out of black goats and white lambs. Jacob was proposing to keep multi-colored offspring out of solid-colored parents. This proposal sounded too good to Laban and he gladly accepted.

Jacob was used to cheating and being cheated but this time he did not cheat. As a result, Jacob blindsided Laban by faithfully complying with what he negotiated with Laban. Eventually the multi-colored sheep of Jacob outnumbered those of Laban and they were healthier too. The world is full of cheaters who prosper but Jacob proved that he ultimately won by following God's way and His promis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RSI-Sat

2022 February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치다

Jacob Flees from Lab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라반과의 거래를 통해 큰 부자가 된 야곱은 라반 몰래 밧단아람을 떠나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 라헬은 라반의 드라빔 (우상)을 몰래 훔치게되고, 이를 알게 된 라반은 야곱의 무리를 추격합니다. 실망과 억울함이 뒤엉켜 재회하게 된 라반과 야곱은 갈등을 해결하는 증거로 돌무더기를 세우며 하나님앞에서 화해를 약속합니다.

♬ 새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묵상·창세기 31:4-16

통독·창세기 31장

- **4**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 5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 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 6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 거늘
- 7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 8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삯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삯이 되리 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 9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 셨느니라
- 10 그 양 떼가 새끼 밸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 11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 12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 13 나는 벧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 14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 15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 16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Reading Insight

Having become a rich man through the deals with Laban, Jacob secretly fled Paddan Aram for home without notifying Laban. During this process, Jacob's wife Rachel stole her father's household gods (idols) and having noticed, Laban pursued Jacob. Disappointed and feeling cheated, Laban and Jacob met again and promised each other reconciliation in front of God and set up a stone heap as a witness for resolution of their conflicts.

Hymn 620 Gathered here, within this place

Meditation • Genesis 31:4-16

Reading Plan • Genesis 31

- 4 So Jacob sent and called Rachel and Leah into the field where his flock was
- ⁵ and said to them, "I see that your father does not regard me with favor as he did before. But the God of my father has been with me.
- 6 You know that I have served your father with all my strength,
- ⁷ yet your father has cheated me and changed my wages ten times. But God did not permit him to harm me.
- 8 If he said, 'The spotted shall be your wages,' then all the flock bore spotted; and if he said, 'The striped shall be your wages,' then all the flock bore striped.
- **9** Thus God has taken away the livestock of your father and given them to me.
- 10 In the breeding season of the flock I lifted up my eyes and saw in a dream that the goats that mated with the flock were striped, spotted, and mottled.
- 11 Then the angel of God said to me in the dream, 'Jacob,' and I said. 'Here I am!'
- 12 And he said, 'Lift up your eyes and see, all the goats that mate with the flock are striped, spotted, and mottled, for I have seen all that Laban is doing to you.
- 13 I am the God of Bethel, where you anointed a pillar and made a vow to me. Now arise, go out from this land and return to the land of your kindred."
- 14 Then Rachel and Leah answered and said to him, "Is there any portion or inheritance left to us in our father's house?
- 15 Are we not regarded by him as foreigners? For he has sold us, and he has indeed devoured our money.
- **16** All the wealth that God has taken away from our father belongs to us and to our children. Now then, whatever God has said to you, do."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함께 라 반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설 득했나요? (31:5-13)

Jacob persuaded Rachel and Leah to flee Laban and go to his hometown. How did he persuade them? (31:5–13)

레아와 라헬은 어떻게 응답했나 요? (31:14-16) How did Leah and Rachel respond? (31:14-1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하트포드한인교회, 최운돈(CT)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송종남(DE)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벧엘의 하나님 God of Bethel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 끊임없는 지체와 낙심에 부딪쳐야 했습니다. 라헬과 혼인을 하기까지 14년이란 인고의 시간을 겪어야 했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자신 소유의 충분한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삼촌과의 갈등, 두 아내의 다툼은 그를 더욱 낙담시켰습니다.

그때마다 "벧엘의 하나님"(31:13)이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언제나 야 곱과 함께 할 것이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겠다 하신(28:15) 주의 약속이 야곱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체험한 것'은 다릅니다. 벧엘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의 믿음의 뿌리가 지금 그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어떠한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벧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While Jacob stayed with Laban, Jacob had to endure endless postponements and disappointments. He had to endure 14 years of hardship to marry Rachel and he had to try very hard to secure his fair share of possessions before he left for his hometown. The conflict with his uncle and the bickering between his two wives made him even more disappointed.

At each moment, "the God of Bethel" helped Jacob (31:13). The promise of God, "I am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kept Jacob's body and mind protected (Gen 28:15).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understanding God's grace with the brain" and "experiencing God's grace with the body." Having experienced the presence of God at Bethel, the deep roots of Jacob's faith are holding him tightly. Any kind of storm will not make him falter. The God of Bethel is holding us close to Him even now.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mathcal{I}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얍복강 이전의 야곱

황창진목사 웨슬리안타임지

오래전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일을 할 때, 아침마다 교역자 조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전체 교역자들이 모여서 한 20여 분 정도 돌아가며 성서를 읽고 기도하고 업무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성서를 읽는 순서였는데 마침 야곱에 관한 본문이었습니다. 본문을 다 읽고 업무를 공유하는 시간 초입에 담임목사께서 저에게 물으셨죠. "황 전도사는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나?"

일상적이지 않게 문득 물어 오시는 질문에 살짝 움찔하면서도 젊은 기백으로 대답하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야곱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한테 사기나치고 그러잖아요..."그랬더니 담임목사님이 속 좋게 웃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성서가 족장으로 기록한 믿음의 인물인데 너무 싫어하지는 마시게~~^^"

오랜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제가 대답했던 그 대목은 양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참 얄팍합니다. 성서에 나타나는 캐릭터를 봐도 그렇구요. 형 에서는 사냥도 잘 하고 온몸에 털도 북실북실하니 터프한 인생인 것 같구요, 그러니 남성적이고 호탕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조금은 얍삽한 기질도 있어 보이구요(?) 내성적인 거 같은데 자기의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그 만만하지 않은 장남의 자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사 버릴 생각을 했겠지요? 나아가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는데 그 작업을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공범으로 만드는 수완도 가지고 있으니 정말머리는 좋은, 만만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야곱아 넌 이제 여기서 살기 힘들어, 네 형이 상황을 모두 알았으니 너에게 해코지할 거야, 그러니 어서 도망가거라"

어머니의 말을 따라 야곱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밀려납니다. 터덜터덜~~ 인생에서

밀리는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하나님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철저하게 조건문이죠. "하나님이 제가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창 28:20-22).

그러니 삼촌의 집에서라고 별로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수완을 부려서 자신의 소유를 늘리고 결국은 거기에서도 더 살 수 없으니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가만히 야곱을 살펴보면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근간에는 소유에 대한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동생인데도 수단을 가리지 않고 형이 되려고 하는 등, 주변의 모든 것을 도구화해서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작업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데 부모형제라고 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누구는 길가에 아름답게 피어 있는 예쁜 꽃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함께 경탄의 순간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핀 그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혼자서 보려는 자기중심성을 따라 기어이 꺾어 버리는 무자비한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던 야곱이 얍복강가에 엎드려 있습니다. 삼촌 집에서 나온 야곱은 두려운 여정을 걸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살아온 삶의 이력은 야곱을 목적지가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도구화해서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을 믿음의 대 상으로 재설정하고 자신의 존재를 바꾸어 내는 작업뿐입니다.

야곱은 이 작업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걸고 승부를 한 듯합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바꾸어내고야 맙니다. 수단으로 달고 다녔던 하나님이 궁극의 존재가 되었구요, 그러니 자신을 마중 나와 가족의 근황을 묻는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창 33:5).

그런데 문제는 얍복강 이전의 야곱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의 속에서도 자꾸만 보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정직해라, 의로워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누군가와 밥그릇을 가지고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벌한 '밥그릇 싸움'한 판을 벌이는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 아닌가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어깨에 붙여 논계급장은 그 싸움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 서열은 하나님의 뜻을 뭉개는 훌륭한 도구로 작동하니 말입니다.

^{ваев}·моп

2022 February

에서를 만나려는 야곱

Jacob Prepares to Meet Esau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고향 길에 오른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화려한 선물을 앞세워 에서의 미움을 완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가족들을 먼저 보낸 뒤 홀로 얍복나루를 건너는 중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와 밤새 씨름하여 이기고 그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개명 받고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칭합니다.

♬ 새289장(통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묵상·**창세기 32:22-32**

통독·창세기 32장

- 22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루를 건널새
- 23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 과 씨름하다가
-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 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 나이다
-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 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지라
-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생명 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 32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Reading Insight

Now on his way to his homeland, Jacob was afraid of meeting Esau. He tried to appease the hatred of Esau by sending splendid gifts ahead of him. Having sent his family ahead of him, he alone was crossing the fjord of the Jabbok, met a man, wrestled with the man all night, and had overcome and received blessing from the man. Jacob was renamed Israel and the place was called Peniel (the face of God).

F Hymn 289 What a Wonderful Change

Meditation • Genesis 32:22-32

Reading Plan • Genesis 32

- 22 The same night he arose and took his two wives, his two female servants, and his eleven children, and crossed the ford of the Jabbok.
- 23 He took them and sent them across the stream, and everything else that he had.
- **24** And Jacob was left alone. And a man wrestled with him until the breaking of the day.
- 25 When the man saw that he did not prevail against Jacob, he touched his hip socket, and Jacob's hip was put out of joint as he wrestled with him.
- **26** Then he said, "Let me go, for the day has broken." But Jacob said,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 27 And he said to him, "What is your name?" And he said, "Jacob."
- **28** Then he said, "Your name shall no longer be called Jacob, but Israel, for you have striven with God and with men, and have prevailed."
- 29 Then Jacob asked him, "Please tell me your name." But he said, "Why is it that you ask my name?" And there he blessed him.
- **30** So Jacob called the name of the place Peniel, saying, "For I have seen God face to face, and yet my life has been delivered."
- **31** The sun rose upon him as he passed Penuel, limping because of his hip.
- 32 Therefore to this day the people of Israel do not eat the sinew of the thigh that is on the hip socket, because he touched the socket of Jacob's hip on the sinew of the thig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32:26)

What did Jacob ask and eventually receive by not letting go of the man? (32:26)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지어준 새로운 이름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요? (32:28)

What was the new name Jacob got from the man and what was its meaning? (32:2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철구(FL)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호진(F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이 되다 Jacob became Israel

얍복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람은 갑자기 야곱의 이름 을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는 대답합니다(32:27). 그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함으 로써 부끄러운 과거도 함께 시인합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25:26). 거짓으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복을 빼앗 았던(27:36)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부끄러운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야곱 대신에 그는 "하나님 이 싸우신다"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씨름을 시작하게 하신 분 도, 승리는 거두도록 하신 분도, 새 이름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야 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야기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The man who struggled with Jacob at the fjord of the Jabbok suddenly asked Jacob his name. "Jacob," he answered (32:27). The meaning of his name was "grasping the heel." By telling his name to the man Jacob acknowledged his shameful past as well. Jacob grasped his brother's heel even in the womb of his mother (Gen 25:26), acquired the rights of the firstborn by cheating, and received the blessing of his father as the firstborn also by cheating (Gen 27:36).

Now his shameful past is over. Instead of Jacob, he acquired a new name Israel meaning "God fights" or "God reigns." It was God who made Jacob wrestle all night, made Jacob overcome, and gave Jacob the new name. The story of Jacob renamed as Israel is the beginning of the history of salvation of God toward the Israelites as well as toward all nation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화요일·Tue

2022 Februar

에서와 야곱 화해하다

Jacob and Esau Make Peac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야곱과 그의 가족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린 에서와 마주칩니다. 야곱이 가까이 다가가 절하자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서로 안고 울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새270장(통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묵상·창세기 33:1-11

통독·창세기 33장

- 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 ²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 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 3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 4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 5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 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 6그 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 7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 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 8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 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 9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 유는 네게 두라
- 10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 11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 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Reading Insight

Jacob and his family met face to face with Esau and his 400 men. As Jacob bowed down to the ground, Esau ran to Jacob to meet and embrace him, and they wept. Jacob arrived at Shechem in Canaan, where he set up an altar and praised God.

☐ Hymn 270 Let us Sing of His Love

Meditation • Genesis 33:1-11

Reading Plan • Genesis 33

- 1 And Jacob lifted up his eyes and looked, and behold, Esau was coming, and four hundred men with him. So he divided the children among Leah and Rachel and the two female servants.
- ² And he put the servants with their children in front, then Leah with her children, and Rachel and Joseph last of all.
- ³ He himself went on before them, bowing himself to the ground seven times, until he came near to his brother.
- ⁴ But Esau ran to meet him and embraced him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and they wept.
- ⁵ And when Esau lifted up his eyes and saw the women and children, he said, "Who are these with you?" Jacob said, "The children whom God has graciously given your servant."
- 6 Then the servants drew near, they and their children, and bowed down.
- 7 Leah likewise and her children drew near and bowed down. And last Joseph and Rachel drew near, and they bowed down
- 8 Esau said, "What do you mean by all this company that I met?" Jacob answered, "To find favor in the sight of my lord."
- 9 But Esau said, "I have enough, my brother; keep what you have for yourself."
- 10 Jacob said, "No, please,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sight, then accept my present from my hand. For I have seen your face, which is like seeing the face of God, and you have accepted me.
- 11 Please accept my blessing that is brought to you, because God has dealt graciously with me, and because I have enough." Thus he urged him, and he took i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야곱과 에서가 재회하는 장면을 머 릿속에 그리며 상상해보세요. (33:1-4)

Imagine and create the scene of Jacob and Esau reuniting in your mind. (33:1-4)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소유가 어디 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하나요? (33:5, 10-11)

Where did Jacob confess his family and possessions came from? (33:5, 10-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 김종권(FL)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 백승린(FL) 목회자를 위한 기도

조건 없는 용서 Unconditional forgiveness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는 "용서의 관하여"라는 글에서, "내가 꿈꾸는 것은, 그리고 내가 용서의 '순수성'으로 용서라는 이름을 지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용서는, 아무런 권력이 없는 용서다"(On Forgiveness: A Roundtable Discussion with Jacques Derrida, p59)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권력이 없다는 말은 용서를 주고받는 둘 사이에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가 전제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조건적인용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그는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두 팔 벌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야곱이 미리 보낸 선물도 사양하며 "나는 넉넉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의 용서와 화해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값없이 베푸신 주님의 용서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The philosopher Jacques Derrida once stated in his writings titled On Forgiveness, "Must one not maintain that an act of forgiveness worthy of its name, if there ever is such a thing, must forgive the unforgivable and without condition." (On Forgiveness: A Roundtable Discussion with Jacques Derrida, p. 59) Forgiveness without power is unconditional forgiveness.

Esau had forgiven Jacob unconditionally. Esau ran to Jacob as soon as he saw Jacob and embraced him: Esau threw his arms around Jacob's neck and kissed him. And they wept. Esau declined to accept the gifts sent ahead by saying, "I already have plenty." The reason why this scene impresses us as so beautiful is because their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resemble the forgiveness that Christ has bestowed upon us. We are grateful today to our LORD for His unconditional and priceless grace of forgiveness upon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수요일·Wed

2022 February

은혜가 필요합니다

We need His grac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의 세겜에서 터를 잡고 머무르던 중 레 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역의 통치자로부터 성폭 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어 디나와 혼인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세겜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뒤. 그들을 몰살합니다.

♬ 새368장(통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묵상·창세기 34:5-7, 25-31

통독·창세기 34장

- 5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 6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 7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 25 제삼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 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 26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 27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 28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 는 것과
- 29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 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 30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 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 망하리라
- 31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Reading Insight

As Jacob and his family settled down in Shechem of Canaan, Dinah, the daughter Leah had borne to Jacob, was violated by the ruler of the area. In revenge, the sons of Jacob deceitfully enticed the men of Shechem to circumcise as a condition to allow the ruler to marry Dinah. While the men were still recovering after circumcision, the sons attacked the unsuspecting city and killed every male.

Hymn 368 Heart Longings

Meditation • Genesis 34:5-7, 25-31

Reading Plan • Genesis 34

- ⁵ Now Jacob heard that he had defiled his daughter Dinah. But his sons were with his livestock in the field, so Jacob held his peace until they came.
- 6 And Hamor the father of Shechem went out to Jacob to speak with him.
- 7 The sons of Jacob had come in from the field as soon as they heard of it, and the men were indignant and very angry, because he had done an outrageous thing in Israel by lying with Jacob's daughter, for such a thing must not be done.
- 25 On the third day, when they were sore, two of the sons of Jacob, Simeon and Levi, Dinah's brothers, took their swords and came against the city while it felt secure and killed all the males.
- 26 They killed Hamor and his son Shechem with the sword and took Dinah out of Shechem's house and went away.
- **27** The sons of Jacob came upon the slain and plundered the city, because they had defiled their sister.
- 28 They took their flocks and their herds, their donkeys, and whatever was in the city and in the field.
- ²⁹ All their wealth, all their little ones and their wives, all that was in the houses, they captured and plundered.
- **30** Then Jacob said to Simeon and Levi, "You have brought trouble on me by making me stink to the inhabitants of the land,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My numbers are few, and if they gather themselves against me and attack me, I shall be destroyed, both I and my household."
- 31 But they said, "Should he treat our sister like a prostitut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디나의 몸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반응은 어떠했나 요? (34:5)

When Jacob heard that Dinah was violated, what was his reaction? (34:5)

야곱이 걱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 유는 무엇인가요? (34:30) What was the basic reason for Jacob's concern? (34:3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 김선용(FL) 헤르난도한인교회, 윤대섭(FL)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야곱의 본성 Jacob's true character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야 곱.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가 태어난 이래로 서로 싸우고 속여왔던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야곱의 본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레아를 향한 야곱의 냉담함은 그녀의 여섯 아들과 딸인 디나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딸이 당한 성폭행과 유괴에 대해 침묵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복수에 성공한 시므온과 레위를 다그치며 자신의 명예와 신변만을 걱정합니다. 야곱의 관심은 언제나 '나'였습니다. 우리는 늘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는 주의 자녀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야곱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Jacob attained a new name "Israel" by struggling with the man of God all night. But the born-again Israel returned to Canaan courageously and faced his brother Esau and reconciled with him dramatically ending a lifetime of bickering and cheating since their birth. Then again Israel was still Jacob and could not shake off the old "Jacob's character."

The cool attitude of Jacob toward Leah extended to six children of Leah borne to Jacob and to their daughter Dinah as well. Jacob not only kept quiet when his daughter was violated and abducted but also rebuked his sons Simeon and Levi who successfully avenged their sister's dishonor. He cared only for his own personal honor and safety. Jacob's interest was always "me first." We always confess that Jesus is our Savior and we are the children of the LORD but the character of Jacob still remains as part of us. That is why we need the grace of God even toda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목요일·Thu 10

2022 February

야곱이 벧엘로 돌아감

Jacob's Return to Bethe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세겜에서 큰일을 겪은 야곱은 다시 벧엘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가족들과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벧엘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 됨을 재확인하시며 축복을 내리십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어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지내고, 이삭도 180세에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 새278장(통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묵상·**창세기 35:1-13**

통독·창세기 35장

- 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 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 2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 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 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 3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 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 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 무 아래에 묻고
- 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 6야곱과 그와 함께 한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루스 곧 벧엘에 이르고
- 7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 8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벧엘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 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 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 10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 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 11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 리에서 나오리라
- 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 13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Reading Insight

Having experienced major events in Shechem, Jacob heard the voice of God telling him to go to Bethel again. Obeying God, Jacob went back with all his family to Bethel where he met God in the past. At Bethel, God reconfirmed that Jacob was renamed as "Israel" and blessed him. Jacob's wife Rachel died on the way to Bethel and was buried there. Isaac lived 180 years and when he died was gathered to his people.

Far from the Lord I wondered long

Meditation • Genesis 35:1-13

Reading Plan • Genesis 35

- ¹ God said to Jacob, "Arise, go up to Bethel and dwell there. Make an altar there to the God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fled from your brother Esau."
- ² So Jacob said to his household and to all who were with him, "Put away the foreign gods that are among you and purify yourselves and change your garments.
- ³ Then let us arise and go up to Bethel, so that I may make there an altar to the God who answers me in the day of my distress and has been with me wherever I have gone."
- 4 So they gave to Jacob all the foreign gods that they had, and the rings that were in their ears. Jacob hid them under the terebinth tree that was near Shechem.
- ⁵ And as they journeyed, a terror from God fell upon the cities that were around them, so that they did not pursue the sons of Jacob.
- 6 And Jacob came to Luz (that is, Bethel), which is in the land of Canaan, he and all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 7 and there he built an altar and called the place El-bethel, because there God had revealed himself to him when he fled from his brother
- 8 And Deborah, Rebekah's nurse, died, and she was buried under an oak below Bethel. So he called its name Allon-bacuth.
- 9 God appeared to Jacob again, when he came from Paddan-aram, and blessed him.
- 10 And God said to him, "Your name is Jacob; no longer shall your name be called Jacob, but Israel shall be your name." So he called his name Israel.
- 11 And God said to him, "I am God Almighty: be fruitful and multiply. A nation and a company of nations shall come from you, and kings shall come from your own body.
- 12 The land that I gave to Abraham and Isaac I will give to you, and I will give the land to your offspring after you."
- 13 Then God went up from him in the place where he had spoken with hi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벧엘로 가기 전 무엇을 하였나요? (35:2-4) What did Jacob and his family do before they returned to Bethel? (35:2-4)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상기해봅시다 (35:9-12) Let us meditate about the blessings God bestowed to Jacob. (35:9-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노크로스한인교회, 박희철(GA) 뉴난한인감리교회, 남성원(G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다시 벧엘로! To Bethel again!

아들들에 의해 자행된 대량 학살사건은 야곱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이 자신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벧엘로 가라." 그곳은 그가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너를 지키고 인도하여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곳이 바로 벧엘입니다. 야곱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하여 모든 가족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정결하게 하고 벧엘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35:11-12).

흐트러진 옷깃을 여미고 다시 벧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거추장스럽게 붙어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35:2) 다시 벧엘로 발길을 돌리는 길이 곧 복된 길입니다.

The massacre carried out by his children in Shechem made Jacob hunker down. As he feared the possibility of the Canaanites to seek revenge against him, he heard the voice of God, "Go to Bethel again." That was the place where he met God before. It was at Bethel where he heard the promise of God, "I will keep you safe and lead you to your father's house in peace." Jacob immediately obeyed God, cleansed his family and household, and arrived at Bethel. At Bethel, God blessed Jacob again (35:11–12).

It is time to tidy up our clothing and go back to Bethel. "Get rid of the foreign gods you have with you, and purify yourselves and change your clothes" (35:2). Turn around and head to Bethel because that is the way to blessing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HADELY Fri

2022 February

에서의 자손

The descendants of Esau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에서 곧 에돔의 족보와 함께 에서와 아다, 바스맛, 오홀리바마 사이에서 나온 자손들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에돔 땅의 원주민 세일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 새445장(통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묵상·창세기 36:1-8

통독·창세기 36장

- 1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 2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혯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 로 맞이하고
- 3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 더니
- 4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 을 낳았고
- 5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 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 듴이더라
- 6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다른 곳으로 갔으니
- 7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 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 8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Reading Insight »

The names of the descendants of Esau and his wives Adah, Basemath, and Oholibamah are listed together with the lineage of Esau and Edom. The natives of Edom, that is, the descendants of Seir and the names of the rulers of Canaan prior to establishment of the kings of Israel, were listed.

F Hymn 445 Walking in Sunlight all of My Journey

Meditation • Genesis 36:1-8

Reading Plan • Genesis 36

- 1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Esau (that is, Edom).
- ² Esau took his wives from the Canaanites: Adah the daughter of Elon the Hittite, Oholibamah the daughter of Anah the daughter of Zibeon the Hivite,
- ³ and Basemath, Ishmael's daughter, the sister of Nebaioth.
- 4And Adah bore to Esau, Eliphaz; Basemath bore Reuel;
- 5 and Oholibamah bore Jeush, Jalam, and Korah. These are the sons of Esau who were born to him in the land of Canaan.
- 6 Then Esau took his wives, his sons, his daughters, and all the members of his household, his livestock, all his beasts, and all his property that he had acquired in the land of Canaan. He went into a land away from his brother Jacob.
- ⁷ For their possessions were too great for them to dwell together. The land of their sojournings could not support them because of their livestock.
- 8 So Esau settled in the hill country of Seir. (Esau is Edo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에서는 몇명의 부인과 몇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36:1-5) How many wives and sons did Esau have? (36:1-5)

에서가 야곱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에서가 결국 정착한 곳은 어디인가요? (36:6-8)

Why couldn't the families of Esau and Jacob live together and where did they settle down? (36:6-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형렬(GA)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 박진원(G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약속의 길 The promised way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에서의 자손을 열거하는 것 이외에도 그가 택함 받은 민족의 무리에서 어떻게 이탈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 습니다. 창세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족의 뿌리와 혈통을 중요하게 여 기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역시 그 전통에 따라 자신들의 아 들들이 데라 자손의 혈통 내에서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을 하였고 이는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경시한 꼴이 되었 습니다.

그밖에도 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함께 가나안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두 가족이 살기에는 비좁다고 판단하여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에 터를 잡았습니다. 가나안을 떠난 에서로 인해 야곱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가나안 땅)을 유일하게 물려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한 명은 약속의 길로 다른 하나는 멸망의 길로 들어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나요?

Today's scripture described not only the lineage of the descendants of Esau but also why Esau was separated from the chosen people of God. During the period of Genesis, in Israel, the roots and lineage of family were important. Abraham and Isaac wanted their sons to marry someone from the descendants of Terah, their father and grandfather, but Esau ignored the tradition of his ancestors by marrying women from Canaan.

In addition, Esau did not bother to settle down in the promised land of Canaan. Though Esau could have lived together with Jacob in Canaan, he thought the land was not big enough to support the livestock of two families. So he left Canaan and settled down in the hill country of Seir. Once Esau was gone, Jacob became the only heir to inherit the covenant of God with Abraham (the promised land; Canaan). Hence the twins Esau and Jacob chose to part ways; one to the promised path and another to the path of destruction. Which path are we on toda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R일·Sat

2022 February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요셉

Joseph Sold by His Brother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 보다 더 사랑하였고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었습니다. 요셉을 질투한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분노하여 그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 속에 넣었다가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다시 보디발이란 사람의 집에 팔리게 되는데 그는 왕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 새543장(통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묵상·창세기 37:18-32

통독·창세기 37장

- 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 19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 20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 니라 하는지라
- 21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 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 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 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 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 색옷을 벗기고
- 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 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 27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 28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 29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 30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 31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 32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Reading Insight

Jacob loved Joseph more than any of his other sons, because he had been born to him in his old age; and he made an ornate robe for Joseph. His brothers, who were envious of Joseph, hated him all the more when they heard about his dream and sold him to a Midianite merchant soon after they stripped his robe and throw him into a cistern. In Egypt, Joseph was sold once again to a man name Potiphar who was one of Pharaoh's officials, the captain of the guard.

☐ Hymn 543 Simply Trusting Every day

Meditation • Genesis 37:18-32

Reading Plan • Genesis 37

- **18** They saw him from afar, and before he came near to them they conspired against him to kill him.
- 19 They said to one another, "Here comes this dreamer.
- 20 Come now, let us kill him and throw him into one of the pits. Then we will say that a fierce animal has devoured him, and we will see what will become of his dreams."
- 21 But when Reuben heard it, he rescued him out of their hands, saying, "Let us not take his life."
- 22 And Reuben said to them, "Shed no blood; throw him into this pit here in the wilderness, but do not lay a hand on him"—that he might rescue him out of their hand to restore him to his father.
- 23 So when Joseph came to his brothers, they stripped him of his robe, the robe of many colors that he wore.
- 24 And they took him and threw him into a pit. The pit was empty; there was no water in it.
- 25 Then they sat down to eat. And looking up they saw a caravan of Ishmaelites coming from Gilead, with their camels bearing gum, balm, and myrrh, on their way to carry it down to Egypt.
- 26 Then Judah said to his brothers, "What profit is it if we kill our brother and conceal his blood?
- 27 Come, let us sell him to the Ishmaelites, and let not our hand be upon him, for he is our brother, our own flesh." And his brothers listened to him
- **28** Then Midianite traders passed by. And they drew Joseph up and lifted him out of the pit, and sold him to the Ishmaelites for twenty shekels of silver. They took Joseph to Egypt.
- 29 When Reuben returned to the pit and saw that Joseph was not in the pit, he tore his clothes
- **30** and returned to his brothers and said, "The boy is gone, and I, where shall I go?"
- 31 Then they took Joseph's robe and slaughtered a goat and dipped the robe in the blood.
- 32 And they sent the robe of many colors and brought it to their father and said, "This we have found; please identify whether it is your son's robe or no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셉을 향한 형들의 음모는 무엇인 가요? (37:20)

What plan did Joseph's brother devise against Joseph? (37:20)

요셉의 형들은 실제로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37:23-32) What did Joseph's brothers end up doing with Joseph? (37:23-3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송희섭(GA)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 남궁 전(G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우연? 필연! Coincidence or Necessity?

형들에 의해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어린 요셉을 상상해 봅니다. 그가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을까요? 애석하게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고 안내했던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도" 유일하게 요셉을 위했던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는 애굽의 보디발이란 사람에게 팔리게 되었는데 하필 그곳이 바로 왕의 경호대장의 집이었고 그곳에서 요셉의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요셉이 겪은 이 모든 일은 그저 우연의 연속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당사자인 요셉조차도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 '우연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인간의 눈에는 우연일지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Let us imagine about Joseph who was stripped by his own brothers and thrown into a cistern. Imagine the terror and hurt that he must have experienced. Unfortunately, the Lord who was his father Jacob's comfort and guide at every moment of crisis throughout his life was nowhere to be found in this time of crisis for Joseph. This is how Joseph experiences total absence of God in his life.

Then when Reuben, who was the only advocate for Joseph, "co-incidentally" was away briefly, the Midianite merchant who "coincidentally" was passing by the area ended up buying Joseph. And Joseph is sold once again in Egypt to a man named Potiphar who happens to be one of the Pharaoh's officials as the captain of the guard. There, Joseph begins a new life. As all of us know, all these events in Joseph's life were no coincidence. But Jacob and his sons, and even Joseph himself, did not know this.

Our God is God who guides us and make things happen in ways that we do not completely understand through countless "coincidences" in our world. Although everything may seem like simple coincidences to people, they are necessities to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13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mathcal{I}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13 February

성경을 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다

이건희목사 남문교회

꽤나 괜찮은 나를 발견하려 하는 순간 성경은 닫혀 버립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만 할 때 성경은 미로같이 꼬여 버립니다.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 1. 실패한 인간의 역사! 그모습이 바로 나입니다.
- 2. 그 인간(나)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 3. 그리고 내게 순종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죄인인 인간의 실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형으로 요셉, 사무엘과 같은 흠 없는 사람들의 예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기죽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겁쟁이 아브라함,

간음 · 거짓말 · 살인하여 십계명을 종합세트로 어긴 다윗, 근친상간을 한 유다와 다말, 그리고 롯, 율법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 백성을 향해 성질내는 모세, 허구한 날 불평해대는 이스라엘 백성, 부인을 천 명이나 두고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 그리고 시기와 미움에 싸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그런 자들을 너무 쉽게 욕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투성이, 넘어짐투성이인 그들 안에서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제야 비로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느껴집니다.

그다음,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셨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벌주심조차 용서의 표였습니다. 아담도, 다윗도 벌을 받았지요. 하지만 다시 죄짓지 말라는 인자하신 은혜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용서가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피흘림의 제사로용서가 임합니다. 높이 들린 놋 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 그은혜의 완성은 예수 십자가였습니다.
- 그 안에서 죄인인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납니다.
-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대항하는 말씀 때문에 돌이키게 되고 회개합니다. 실망하는 자리에서 말씀 때문에 일어섭니다. 거친 파도 이는 세상 속에서 말씀이 평안을 이루어냅니다.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만지심이 느껴집니다. 말씀이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순종할 용기를 주시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2022 February

하나님의 구원 역사

God's Work of Salvati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유다는 장자 엘이 죽자, 둘째 아들 오난과 다말을 계대 결혼시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오난도 악을 행하여 죽게 되고, 결국다말은 창녀의 모습으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가계를 잇게 됩니다. 그 아들이 다윗의 선조. 베레스가 됩니다.

♬ 새524장(통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묵상·**창세기 38:1-11**

통독·창세기 38장

- 1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 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 ²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 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 라 하니라
- 4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 5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 6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맠이더라
- 7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 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 8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 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 9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 10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 11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Reading Insight

When his first son Er dies, Judah arranges his second son Onan to sleep with Tamar to raise up offering for Er. However, Onan does a wicked thing and dies. Eventually, Tamar pretends to be a prostitute and sleeps with Judah, her father–in–law, in order to preserve the lineage. Her son Perez becomes the ancestor of King David.

🎵 Hymn 524 Make no Delay Come to the Savior, Make no Delay

Meditation • Genesis 38:1-11

Reading Plan • Genesis 38

- 1 It happened at that time that Judah went down from his brothers and turned aside to a certain Adullamite, whose name was Hirah.
- ² There Judah saw the daughter of a certain Canaanite whose name was Shua. He took her and went in to her,
- 3 and she conceived and bore a son, and he called his name Er.
- 4 She conceived again and bore a son, and she called his name Onan.
- 5 Yet again she bore a son, and she called his name Shelah. Judah was in Chezib when she bore him.
- 6 And Judah took a wife for Er his firstborn, and her name was Tamar.
- **7** But Er, Judah's firstborn, was wicked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the LORD put him to death.
- 8 Then Judah said to Onan, "Go in to your brother's wife and perform the duty of a brother-in-law to her, and raise up off-spring for your brother."
- **9** But Onan knew that the offspring would not be his. So whenever he went in to his brother's wife he would waste the semen on the ground, so as not to give offspring to his brother.
- 10 And what he did was wicked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put him to death also.
- 11 Then Judah said to Tamar his daughter-in-law, "Remain a widow in your father's house, till Shelah my son grows up"-for he feared that he would die, like his brothers. So Tamar went and remained in her father's hous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오난을 죽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8:8-11) What is the reason that the Lord put Onan to death? (38:8-11)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무엇을 요 청하였나요? (38:11) What did Judah tell his daughter-in-law Tamar to do? (38: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The Work of Salvation Continues On

본문에 그려진 유다 가문의 이야기는 우리를 다소 불편하게 합니다. 유다는 가문의 씨를 존속하기 위해 아들을 계대결혼 시키고, 결국에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가문을 잇게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문화적, 윤리 적 잣대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물러나 성 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 불편한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에 주요한 연결 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는 유다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며,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바로 이 가문의 후손입니다. 보아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으며 다윗 왕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의 선조(마 1:6; 16)가 됩니다. 인간의 온갖 실수와 타락에도 하나님의 역사는계속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서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t is somewhat disturbing to read Judah's family story. From arranging his son to sleep with a woman who happens to be his sister-in-law to maintaining the family lineage through his own daughter-in-law, such story is difficult to comprehend by today's cultural and moral standards. But when we take a step back and look at this 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Bible, we soon realize that this story plays a pivotal role in the overall story of the Bible.

Perez, who was born to Judah and Tamar, becomes the head of the Judah's lineage and Boaz that we come across in the Book of Ruth is the descendant of Perez. Moreover, Boaz became the ancestor of King David and King David was the ancestor of "Jesus who is called the Messiah (Matt. 1:6, 16). Despite all kinds of mistakes and failures, God's work of salvation continues on. This wonderful truth is something that we cannot fully fathom with our knowledge or understanding. Yes, let us remember that the story of God's work of salvation continues even today and that we are included in that story!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ver for Churches & Pastors

아틀란타한인교회, 김세환(GA)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신용철(G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ŀ

첫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22 Februar

형통한 자

One Who Prosper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바로 왕의 경호대장 집에 종으로 들어간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아름답게 성장하여 주인에게 신뢰를 받은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억울한 옥살이를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감옥 안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큰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묵상·창세기 39:11-23

통독·창세기 39장

- 11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 12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 13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 14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 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 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 게 소리 질렀더니
- 15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 16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 다려
- 17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 18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 19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 **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 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 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 22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 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 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blessed him when he was sold to Pharaoh's official Potiphar. As a result, he prospered in all that he did and gained the trust of his master. However, when Joseph resisted the temptation from his master's wife, he was put in prison. But even in the prison,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so Joseph was able to gain trust from others in the prison.

7 Hymn 545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Meditation • Genesis 39:11-23

Reading Plan • Genesis 39

- 11 But one day, when he went into the house to do his work and none of the men of the house was there in the house,
- 12 she caught him by his garment, saying, "Lie with me." But he left his garment in her hand and fled and got out of the house.
- 13 And as soon as she saw that he had left his garment in her hand and had fled out of the house,
- 14 she called to the men of her household and said to them, "See, he has brought among us a Hebrew to laugh at us. He came in to me to lie with me, and I cried out with a loud voice.
- 15 And as soon as he heard that I lifted up my voice and cried out, he left his garment beside me and fled and got out of the house."
- 16 Then she laid up his garment by her until his master came home.
- 17 and she told him the same story, saying, "The Hebrew servant, whom you have brought among us, came in to me to laugh at me.
- 18 But as soon as I lifted up my voice and cried, he left his garment beside me and fled out of the house."
- 19 As soon as his master heard the words that his wife spoke to him, "This is the way your servant treated me," his anger was kindled.
- **20** And Joseph's master took him and put him into the prison, the place where the king's prisoners were confined, and he was there in prison.
- 21 But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showed him steadfast love and gave him favor in the sight of the keeper of the prison.
- 22 And the keeper of the prison put Joseph in charge of all the prisoners who were in the prison. Whatever was done there, he was the one who did it.
- 23 The keeper of the prison paid no attention to anything that was in Joseph's charge, because the LORD was with him. And whatever he did, the LORD made it succe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간 까닭이 무 엇인가요? (39:11-20) Why was Joseph put in prison? (39:11-20)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39:21-23)

How was it possible for the prison ward to put Joseph in charge of all those held in prison? (39:21–23)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 서정일(GA) 트리니티한인교회, 김경곤(GA) 목회자를 위한 기도

형통케 하시는 은혜

Grace that Brings Prosperity and Success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요셉은 관리직에서 면직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략합니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 했고, 낯선 땅 애굽에 팔려와 종살이를 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하여 성공의 문턱까지 왔던 요셉은 다시 한번 실패와 좌절을 맡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상황과는 별개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39:2, 21)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곳을 주머니에 넣는다고 그 날카로움을 가릴 수 없듯이 아무리 힘 겹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형통한 자로부터 오는 빛과 힘은 그 주변을 매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 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39:23). 오늘도 요셉에게 임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와함께 하기를 빕니다.

For resisting the temptation from Potiphar's wife, Joseph, who was once a manager of an important household, ends up in prison. After being betrayed by his own brothers and separated from the love of his father, Joseph endured the life as a slave in a foreign land of Egypt. But Joseph continued to work hard and seemed to have achieved certain level of success. Then he experiences another devastating setback in his life. The Bible, however, describes Joseph's life this way: "The Lord was with Joseph so that he prospered" (39:2, 21).

As we cannot ignore the sharp point of an awl just because it is placed inside our pocket, one cannot ignore the prosperity and energy that a person experiences when God is with that person and blesses that person. The Bible clearly testifies to us,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gave him success in whatever he did" (39:23). I pray that the grace of God that gave Joseph success may be with us toda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ᅯᆌᄃᇎᇈ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7 AB일·Wed 16

2022 February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

Joseph who
Interprets the Dreams
of Two Official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죄를 지어 옥에 갇히고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듣고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술관원 장의 꿈의 뜻은 사흘 뒤 바로가 그를 복직시킨다는 것이고, 떡관원장 의 꿈의 뜻은 사흘 뒤 그가 바로에게 처형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요셉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으나, 복직된 술관원장 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 새546장(통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묵상·창세기 40:9-15, 20-23

통독·창세기 40장

- 9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꿈에보니 내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 10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 11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 12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 13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 14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 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 소서
- 15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 20 제삼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 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 21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 22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 23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 더라

King's cupbearer and baker were imprisoned because they offended their master the king of Egypt. One day, both of them had a dream and Joseph interpreted their dreams. While the cupbearer's dream meant that he will be released and be reinstated to serve Pharaoh again, the baker's dream meant that he will be executed in three days. And three days later, everything comes to pass as Joseph had said but the cupbearer forgets about Joseph's request after he is reinstated to serve the Pharaoh.

Fig. Hymn 546 Standing on the Promises

Meditation • Genesis 40:9–15, 20–23

Reading Plan • Genesis 40

- 9 So the chief cupbearer told his dream to Joseph and said to him, "In my dream there was a vine before me,
- 10 and on the vine there were three branches. As soon as it budded, its blossoms shot forth, and the clusters ripened into grapes.
- 11 Pharaoh's cup was in my hand, and I took the grapes and pressed them into Pharaoh's cup and placed the cup in Pharaoh's hand."
- **12** Then Joseph said to him, "This is its interpretation: the three branches are three days.
- 13 In three days Pharaoh will lift up your head and restore you to your office, and you shall place Pharaoh's cup in his hand as formerly, when you were his cupbearer.
- 14 Only remember me, when it is well with you, and please do me the kindness to mention me to Pharaoh, and so get me out of this house.
- **15** For I was indeed stolen out of the land of the Hebrews, and here also I have done nothing that they should put me into the pit."
- **20** On the third day, which was Pharaoh's birthday, he made a feast for all his servants and lifted up the head of the chief cupbearer and the head of the chief baker among his servants.
- 21 He restored the chief cupbearer to his position, and he placed the cup in Pharaoh's hand.
- 22 But he hanged the chief baker, as Joseph had interpreted to them.
- 23 Yet the chief cupbearer did not remember Joseph, but forgot hi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술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석을 살 펴봅시다 (40:9-13)

Examine the cupbearer's dream and Joseph's interpretation of the dream (40:9–13).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요 셉이 그에게 한 부탁은 무엇인가 요? (40:14-15)

What request did Joseph make to the cupbearer as he interpreted the meaning of his dream? (40:14–15)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해밀턴밀한인교회, 정찬응(GA) 갈보리연합감리교회, 남규우(H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기다림의 의미 The Meaning of Waiting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희망과 좌절 사이를 무수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될 듯 될 듯하다가 안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부당하게 투옥된 요셉이 마침내 간수장의 눈에 들어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직을 얻게 되고, 함께 수감 중이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의 약속과 달리 복직된 술관원장은 끝내 요셉과 그의 재능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요셉의 억울한 감옥살이는 유지되고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39:21, 23). 즉, 훗날을 위해 요셉을 연단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더 많은 것을 견디게 하고 더 먼 것을 보게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을 갖게 한다"라는 신영복의 말처럼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40:8).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성찰과 연단의 과정임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When we look at Joseph's life, we can see that his life repeatedly oscillates between hope and setbacks. His life can be described as a life of "almost" but never complete. Even though Joseph was imprisoned unfairly, he gained the trust of the prison ward and was put in charge of other prisoners. And when he correctly interpreted the dreams of the baker and the cupbearer, he gained even greater trust and respect from others in the prison.

However, when the cupbearer forgets about Joseph's request after he is released from prison, Joseph's hope of release and vindication is once again shattered and his life of imprisonment continues on without much hope. But the Bible says that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showed him kindness" (39:21, 23). In other words, God was preparing Joseph for something greater in the future.

As Young Bok Shin once said, "Waiting cultivates perseverance and develops the sight that sees even through darkness," Joseph learned to see God and believe that God is with him through his difficult life in prison (40:8). Let us remember that the time of waiting in God is not a meaningless waste of time but a time to have personal reflection and develop perseverance in u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48일·Thu 17

2022 February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A person filled with the spirit of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애굽의 왕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온 나라의 마술사와 현 인들을 불러보았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술관원이 요셉을 회상 하여 바로에게 추천을 하게 되고 요셉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 새89장(통89장) 샤론의 꽃 예수

묵상·창세기 41:37-45

통독·창세기 41장

- 37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 38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갂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 39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 40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 41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 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 42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 43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때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 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 44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 45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 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Pharaoh, king of Egypt, tried to summon magicians and wise men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interpret his dream, but failed. At this time, the cupbearer recalls Joseph and makes a recommendation to Pharaoh. Joseph correctly interprets the dream and eventually becomes the prime minister of Egypt.

☐ Hymn 89 Jesus, Rose of Sharon

Meditation • Genesis 41:37-45

Reading Plan • Genesis 41

- 37 This proposal pleased Pharaoh and all his servants.
- 38 And Pharaoh said to his servants, "Can we find a man like this, in whom is the Spirit of God?"
- **39** Then Pharaoh said to Joseph, "Since God has shown you all this, there is none so discerning and wise as you are.
- **40** You shall be over my house, and all my people shall order themselves as you command. Only as regards the throne will I be greater than you."
- **41** And Pharaoh said to Joseph, "See, I have set you over all the land of Egypt."
- 42 Then Pharaoh took his signet ring from his hand and put it on Joseph's hand, and clothed him in garments of fine linen and put a gold chain about his neck.
- 43 And he made him ride in his second chariot. And they called out before him, "Bow the knee!" Thus he set him over all the land of Egypt.
- 44 Moreover, Pharaoh said to Joseph, "I am Pharaoh, and without your consent no one shall lift up hand or foot in all the land of Egypt."
- **45** And Pharaoh called Joseph's name Zaphenath-paneah. And he gave him in marriage Asenath, the daughter of Potiphera priest of On. So Joseph went out over the land of Egyp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41:37-43) Let's look at Pharaoh's reaction to Joseph's words. (41:37-43)

바로는 요셉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했나요? (41:38-39) Where did Pharaoh think Joseph's wisdom came from? (41:38-39)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감람연합감리교회, 이영성(HI)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한의준(HI)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향기 God's scent

이국 땅에서의 13년의 모진 종살이와 감옥살이가 끝이 나고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와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버텨낸 요셉은 더 이상 경솔하고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겸비한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만나본 바로는 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41:38)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눈에도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세상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널리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After 13 years of slavery and imprisonment in a foreign land, Joseph was released from prison and stood before Pharaoh. Joseph, who had endured hardship, was no longer a careless and immature child, but a dignified young man with wisdom and understanding that could not be compared with anyone else. Pharaoh, who met Joseph, said he was "a person filled with the spirit of God" (41:38). Even in the eyes of Pharaoh, who did not know God, the power of God was with Joseph.

Those who are moved by the Spirit of God can smell the fragrance of God. Even without trying to present God, the world sees Him through their lives and feels that He is alive. Today, I pray that the fragrance of God will spread widely through you.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日の回・Fri 18

2022 February

형들과 재회하다

Reunited with brother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옵니다. 그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절하게 되는데 이는 요셉의 어릴 적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사흘 동안 가두고 시므온을 억류하고 막내 베냐민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근심하며 돌아가 아비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 새384장(통43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묵상·창세기 42:18-25

통독·창세기 42장

- 18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 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 19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 20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 21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 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 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 게 임하도다
- 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 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 르게 되었도다 하니
- 23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 24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 에서 결박하고
- 25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Because of the famine in Canaan, Jacob's sons came to Egypt to find food. They did not recognize Joseph who became prime minister and bowed down to him. This was the moment when Joseph's childhood dream became a reality. Joseph imprisoned them for three days, detained Simeon, and demanded the youngest Benjamin be brought to him. They went home and reported this to their father Jacob.

Hymn 384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Meditation • Genesis 42:18-25

Reading Plan • Genesis 42

- **18** On the third day Joseph said to them, "Do this and you will live, for I fear God:
- 19 if you are honest men, let one of your brothers remain confined where you are in custody, and let the rest go and carry grain for the famine of your households,
- 20 and bring your youngest brother to me. So your words will be verified, and you shall not die." And they did so.
- 21 Then they said to one another, "In truth we are guilty concerning our brother, in that we saw the distress of his soul, when he begged us and we did not listen. That is why this distress has come upon us."
- 22 And Reuben answered them, "Did I not tell you not to sin against the boy? But you did not listen. So now there comes a reckoning for his blood."
- 23 They did not know that Joseph understood them, for there was an interpreter between them.
- **24** Then he turned away from them and wept. And he returned to them and spoke to them. And he took Simeon from them and bound him before their eyes.
- 25 And Joseph gave orders to fill their bags with grain, and to replace every man's money in his sack, and to give them provisions for the journey. This was done for th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을 제안하였 나요? (42:18-20) What did Joseph suggest to his brothers? (42:18-20)

요셉의 제안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 은 어떠했나요? (42:21-22) How did the brothers react to Joseph's proposal? (42:21-22)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최현규(HI) 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 오대연(H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고향에서 온 가족 The family from hometown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굶주린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홀로 애굽에서 보낸 지난 20년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애굽 땅에 팔려와 외로움을 뒤로하고 그저 살고자 노력했던 그의 삶은 오늘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대면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요셉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요셉의 마음도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내면에는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후회와 회개의 소리를 듣고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42:24).

고향 갈 채비를 하는 형들의 보따리에 곡식을 한가득 채우고 돈을 돌려주고 길양식을 챙기는(42:25) 요셉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아 낯설지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고국의 가족과 형제들이 부디 건강하고 평안 하기를 잠시 기도해 봅니다.

How did Joseph feel when he looked at his starving brothers as the prime minister of Egyp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Joseph spent the last 20 years alone in Egypt struggling for survival. The story of his life, being sold and brought to the land of Egypt with a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 resembles the image of our immigrants today.

He might be terrified to face his brothers who tried to kill him because they might still harbor hatred for Joseph. Joseph's heart was confused with various complex emotions. But deep inside him, there was a deep longing for his family. Hearing the voices of regret and repentance of his brothers, he finally bursts into tears (42:24).

It is not unfamiliar for us to see Joseph, who fills his brothers' sacks with grain, returns their payment, and gives them supplies for their journey home (42:25). Let's pray for a moment that our families and brothers in our homeland will be healthy and peaceful.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ER일·Sat

2022 February

형들을 환대하다

Welcome the brother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식량이 떨어진 야곱의 가족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향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반가워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과 그의 신하들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맞이하여 극진히 대접하며 환대합니다.

♬ 새270장(통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묵상·창세기 43:26-34

통독·창세기 43장

- 26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 27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 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 28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 29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 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 푸시기를 워하노라
- 30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 31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 32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 33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 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 34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 거워하였더라

Jacob's family runs out of food. They take Benjamin and return to Egypt. When Joseph sees Benjamin, he weeps. Joseph and his servants welcome them into Joseph's house and treat them with the utmost hospitality.

☐ Hymn 270 Let us Sing of His Love

Meditation · Genesis 43:26-34

Reading Plan • Genesis 43

- **26** When Joseph came home, they brought into the house to him the present that they had with them and bowed down to him to the ground.
- 27 And he inquired about their welfare and said, "Is your father well, the old man of whom you spoke? Is he still alive?"
- 28 They said, "Your servant our father is well; he is still alive." And they bowed their heads and prostrated themselves.
- 29 And he lifted up his eyes and saw his brother Benjamin, his mother's son, and said, "Is this your youngest brother, of whom you spoke to me? God be gracious to you, my son!"
- **30** Then Joseph hurried out, for his compassion grew warm for his brother, and he sought a place to weep. And he entered his chamber and wept there.
- 31 Then he washed his face and came out. And controlling himself he said, "Serve the food."
- **32** They served him by himself, and them by themselves, and the Egyptians who ate with him by themselves, because the Egyptians could not eat with the Hebrews, for that is an abomination to the Egyptians.
- 33 And they sat before him, the firstborn according to his birthright and the youngest according to his youth. And the men looked at one another in amazement.
- **34** Portions were taken to them from Joseph's table, but Benjamin's portion was five times as much as any of theirs. And they drank and were merry with hi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셉과 형들의 대화의 화제가 무엇 입니까? (44:27-29)

What were the topics of Joseph's conversation with his brothers? (44:27–29)

요셉이 베냐민을 보며 한 행동을 살펴보고 그의 감정을 상상해 봅니 다. (44:29-30)

Consider what Joseph did to Benjamin and imagine how he felt. (44:29–30)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현(HI) 올리브연합감리교회, 김배선(HI)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가족을 용서하는 일 Forgiveness of family sins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내면의 분노를 여과 없이 분출할 때가 있는데 그 일이 잦다 보면 더 이상 그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원수로 전락합니다. 가족같이 관계가 친밀할수록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쌍방향의 개선의 의지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깨졌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가고 있습니다. 형들의 진심 어린 참회가 요셉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고, 요셉은 형들에게 환대를 베풀며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There are times when we mistreat our family who are near and dear to us. There are times when we don't look into their hearts because they're family and instead release our inner anger unfiltered. If it happens often, the relationship is no longer about family, but enemies. The closer a relationship is, like a family, the more difficult it is to restore a broken connection

Relationship recovery requires a will and effort for two-way improvement, because the closer the relationship, the easier for us to consider the issue as less serious. The broken relationship between Joseph and his brothers took time to be restored. The brothers' sincere repentance melted Joseph's frozen heart, and Joseph showed hospitality to his brothers. The course of forgiveness and restoration unfolded. Forgiving family like this required his hard work and devotion.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mathcal{I}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욕망'으로 잘못 해석된 요셉의 꿈

홍인식목사_뉴스앤조이

기독교가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끌었던 것도 기독교를 통하여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오늘도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통하여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열심 있는 믿음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서점에서도 가장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책들은 대부분이 성공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신앙적인 법칙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다. 그런데 과연 기독교는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 주는 종교일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꿈을 이루어 주게 할까. 오늘 우리는 모두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 무슨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꿈을 이룬다는 관점에서 꿈꾸는 사람의 대명사, 꿈의 실현자 요셉은 우리에게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요셉이 이룬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 왔던 그 꿈은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들도 꿈을 꾼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꿈이 다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승리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

요셉의 첫 꿈은 형들의 곡식 단이 자신의 곡식 단에게 절하는 꿈이었다. 두 번째 꿈도 비슷했다.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다. 이 꿈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요셉 자신의 영달을 의미한다. 그가 모든 사람위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마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욕망이 있었던 사람 같

다. 그가 처음부터(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야곱의 특별난 대접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그런 욕망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욕망의 사람임이 틀림없다. 자신의 욕망이 그런 꿈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도 많은 꿈을 꾼다. 그런데 많은 꿈 중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을 대변하는 꿈이 아니었던가. 자신의 영달을 위한 꿈, 욕망은 결국 우리를 고립되게 만든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립을 경험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고립되었다. '왕따'를 당하게된 것이다.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욕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무엇인가를 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생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향하는 욕망을 갖도록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사회뿐 아니라 교회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모두욕망을 갖도록 유도되고 있지 않는가. 오늘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나 교인들도 대형 교회라든지 유명해지는 것이라든지 하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은가.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열차'를 탄 사람들이 아닌가.

오늘날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온통 욕망이라는 꿈을 꾸게끔 만들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리고 각종 신앙 강좌라는 미명 아래 열리고 있는 성공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구호에 매료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이라는 욕망과 그리고 그 '욕망은 이루어진다!'에 몰두하고 있다.

오늘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꿈★은 이루어진다!'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꿈이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진정한 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신앙의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꿈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욕망과 욕망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산다.

우리 모두는 꿈을 꾼다.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꿈의 변화를 경험했다. 그는 욕망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일생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의 꿈은 점차 변화되어 갔다.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좋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리고 진정한 꿈, 참된 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의 꿈이 교정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는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고 화해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아래의 성경 기록은 바로 이러한 요셉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 45:7-8)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나라를 향한 꿈을 갖게 되자, 그는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는가. 우리의 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욕망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떤 꿈을 심어 주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ваев}·моп

2022 Februar

자루 속에 든 은잔

A Silver Cup in a Sack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형제들과 베냐민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셉은 다른 양식과 함께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추격하여 도둑으로 몬 다음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했으나 요셉의 형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잡으라고 요청합니다.

♬ 새449장(통377장) 예수 따라가며

묵상·창세기 44:25-34

통독·창세기 44장

- 25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 26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 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 27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 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 28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 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 29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 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게 하리라하니
- 30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 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 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 31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 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 32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짂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 33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 려보내소서
- 34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When the brothers and Benjamin left for their hometown, Joseph secretly placed a silver cup in Benjamin's sack along with food. Then Joseph's steward pursued them, accused them as thieves, and tried to arrest Benjamin, but Joseph's brothers insisted that they should be arrested instead.

Hymn 449 When We Walk with the Lord

Meditation • Genesis 44:25-34

Reading Plan • Genesis 44

- 25 And when our father said, 'Go again, buy us a little food,'
- 26 we said, 'We cannot go down. If our youngest brother goes with us, then we will go down. For we cannot see the man's face unless our youngest brother is with us.'
- **27** Then your servant my father said to us, 'You know that my wife bore me two sons.
- **28** One left me, and I said, Surely he has been torn to pieces, and I have never seen him since.
- 29 If you take this one also from me, and harm happens to him, you will bring down my gray hairs in evil to Sheol.'
- **30** "Now therefore, as soon as I come to your servant my father, and the boy is not with us, then, as his life is bound up in the boy's life,
- 31 as soon as he sees that the boy is not with us, he will die, and your servants will bring down the gray hairs of your servant our father with sorrow to Sheol.
- **32** For your servant became a pledge of safety for the boy to my father, saying, 'If I do not bring him back to you, then I shall bear the blame before my father all my life.'
- 33 Now therefore, please let your servant remain instead of the boy as a servant to my lord, and let the boy go back with his brothers.
- 34 For how can I go back to my father if the boy is not with me? I fear to see the evil that would find my fat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야곱이 베냐민의 애굽행을 가로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44:27-29) Why did Jacob oppose Benjamin's journey to Egypt? (44:27-29)

유다가 내린 결단은 무엇입니까? (44:32-34) What was Judah's decision? (44:32-34)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 이병훈(IA)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TBS(I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유다의 자기희생 Judah's self-sacrifice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확인한 후에 그를 종으로 삼겠다는 요셉의 말에 유다가 말합니다.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 를 바랍니다"(44:33).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은 후 슬픔의 날을 보내 는 아버지가 그나마 위로를 삼는 것이 베냐민인데, 그 아이마저 종으로 팔린다면 아버지가 겪을 고통을 차마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유다의 계보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After Joseph found the silver cup in Benjamin's sack, Joseph said that he would make Benjamin a slave. Judah responded, "So please, my lord, let me stay here as a slave instead of the boy, and let the boy return with his brothers" (44:33). Jacob had grieved after losing his beloved son Joseph, and it was Benjamin who comforted him, so if Benjamin were sold as a slave, Judah could not bear to see the pain that would be inflicted on his father.

Judah had long ago proposed to his brothers to sell Joseph as a slave, but he changed over the years. We are deeply moved to see Judah admitting his past wrongdoings and sacrificing himself for his father and younger brother. It is no coincidence that David and Jesus Christ are from the tribe of Judah.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фд}22

2022 February

내가 요셉입니다

"I am Josep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유다의 고백을 들은 요셉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그동안의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애굽으로 함께 와서 살기를 청합니다. 이에 형들은 양식을 가지고 야곱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 새304장(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号상·창세기 45:1-8

통독·창세기 45장

- 1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 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 이 없었더라
- 2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 중에 듴리더라
- 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 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 하지 못하더라
- 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 들이 애굽에 판자라
- 5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 시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 6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 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 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 내셨나니
- 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 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Upon hearing Judah's confession, Joseph bursts into tears. He reveals his identity to his brothers and praises the grace of God who has been with him. Also, he instructs his brothers to tell Jacob what has happened, and asks them to come back to Egypt to live with him. So, the brothers take food and go to Jacob and tell him the news.

Hymn 304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Meditation • Genesis 45:1-8

Reading Plan • Genesis 45

- 1 Then Joseph could not control himself before all those who stood by him. He cried, "Make everyone go out from me." So no one stayed with him when Joseph made himself known to his brothers.
- ² And he wept aloud, so that the Egyptians heard it, and the household of Pharaoh heard it.
- 3 And Joseph said to his brothers, "I am Joseph! Is my father still alive?" But his brothers could not answer him, for they were dismayed at his presence.
- 4 So Joseph said to his brothers, "Come near to me, please." And they came near. And he said, "I am your brother, Joseph, whom you sold into Egypt.
- ⁵ And now do not be distressed or angry with yourselves because you sold me here, for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life.
- 6 For the famine has been in the land these two years, and there are yet five years in which there will be neither plowing nor harvest.
- ⁷ And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for you a remnant on earth, and to keep alive for you many survivors.
- 8 So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He has made me a father to Pharaoh, and lord of all his house and ruler over all the land of Egyp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45:1-3) Go over how Joseph reveals himself. (45:1-3)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데려온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나요? (45:4-8)

Who brought Joseph to Egypt by his own remark? (45:4–8)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에임스사랑의교회, TBS(IA)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조항백(IA)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뒷모습 God's appearance from behind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요셉의 말을 뒤집어 보면 지난 일들을 되돌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간 뒤에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누군지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간 후에, 가만히 앉아서 뒤를 돌아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어떻게 살았지? 그때 어떻게 그힘든 시간을 견뎌냈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뒷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나를 떠나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탄식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서 일하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If we reverse Joseph's words, "God did it," it means that we can only know His grace after God has passed through us. It's like when someone walks past me, and I will realize who he is by looking at his back. After a difficult and trying time, when I sit still and reflect back, there are times that God has worked in the midst of my adversity. "How did I endure back then? How did I get through that strenuous time?" When I think about it, I comprehend that God was with me.

This is the back view of God. When God approaches us, we do not recognize Him. The current situation is so difficult that I sometimes fall into the illusion that God has left me. I lament and grumble. We should remember the God who goes before us and prepares a way for u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3

2022 Februar

야곱과 요셉의 재회

The reunion of Jacob and Josep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상 가운데에 나타나 야곱의 애굽행을 지시하 시며 훗날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일 행은 애굽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 새413장(통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묵상·창세기 46:1-7, 28-30

통독·창세기 46장

- 1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 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 2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 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 기 있나이다 하매
-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 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 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 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 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 기리라 하셨더라
- 5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 6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 7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 28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 29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 30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God appears in Jacob's vision, supports his journey to Egypt, and promises to lead him back to Canaan in the future. Jacob's party arrives safely in Egypt.

Fig. Hymn 413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Meditation • Genesis 46:1–7, 28–30

Reading Plan • Genesis 46

- 1 So Israel took his journey with all that he had and came to Beersheba, and offered sacrifices to the God of his father Isaac.
- 2 And God spoke to Israel in visions of the night and said, "Jacob, Jacob." And he said, "Here am I."
- 3 Then he said, "I am God, the God of your father. Do not be afraid to go down to Egypt, for there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 ⁴ I myself will go down with you to Egypt, and I will also bring you up again, and Joseph's hand shall close your eyes."
- 5 Then Jacob set out from Beersheba. The sons of Israel carried Jacob their father, their little ones, and their wives, in the wagons that Pharaoh had sent to carry him.
- ⁶ They also took their livestock and their goods, which they had gained in the land of Canaan, and came into Egypt, Jacob and all his offspring with him,
- **7** his sons, and his sons' sons with him, his daughters, and his sons' daughters. All his offspring he brought with him into Egypt.
- 28 He had sent Judah ahead of him to Joseph to show the way before him in Goshen, and they came into the land of Goshen.
- 29 Then Joseph prepared his chariot and went up to meet Israel his father in Goshen. He presented himself to him and fell on his neck and wept on his neck a good while.
- **30** Israel said to Joseph, "Now let me die, since I have seen your face and know that you are still aliv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 하셨나요? (46:3-4) What did God promise Jacob? (46:3-4)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고센땅에 정 착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지 시했나요? (46:31-34) How did Joseph instruct his family in order to settle them in Goshen? (46:31-34)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갈릴리연합감리교회, 엄모성(IL)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김윤기(IL)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숨을 고르고 예배하다 Let's pause time to worship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45:28) 기뻤고, 하루빨리 요셉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잃어 버린 삶을 되찾는 것과 같이 흥분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다시 떠나는 것은 야곱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그는 브엘세바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46:3~4).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에 옮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숨을 고르고 하나님께 길을 물어봅시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How did Jacob feel when he heard that Joseph was still alive? He was ecstatic "to the point of having no regrets even if he had died right at that moment" (45:28) and wanted to see Joseph as soon as possible. Reuniting with Joseph, whom he thought was dead, was as exciting as reclaiming his lost life. However, it was very serious for Jacob to leave the promised land, Canaan, again.

Confused between God's promise and his current situation, he paused at Beersheba to offer sacrifices to God. And that night he heard the voice of God. "Do not be afraid to go down to Egypt, for there I will make your family into a great nation. I will go with you down to Egypt, and I will bring you back again..." (46:3–4).

In our busy lives, there are many times when we wonder what God's will is, whether my way is the right way, and we may take action without praying. Now let's pause time and ask God for a way. Let's hear God's voic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RADD·Thu 24

2022 February

축복의 통로

The passing of bless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야곱과 바로의 만남에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여 가축을 기르며 살도록 허락합니다. 애굽에 기근이 심해져 백성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바로에게 팔면서 바로의 땅과 소유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 세455장(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자

묵상·**창세기 47:1-12**

통독·창세기 47장

- 1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 2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 3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 4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 곳에 거류하고 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 5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 게 왔은즉
- 6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 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 게 하라
-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 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 8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 9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년 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 10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 11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 어 소유로 삼게 하고
- 12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Reading Insight

At the meeting of Jacob and Pharaoh, Jacob blessed Pharaoh. Pharaoh allows them to settle in the land of Goshen and raise livestock. The famine in Egypt became so severe that the people sold all their possessions to Pharaoh in order to obtain food, and Pharaoh's land and possessions gradually increased.

Hymn 455 We Shall be Like Him

Meditation • Genesis 47:1-12

Reading Plan • Genesis 47

- ¹ So Joseph went in and told Pharaoh, "My father and my brothers, with their flocks and herds and all that they possess, have come from the land of Canaan. They are now in the land of Goshen."
- ² And from among his brothers he took five men and presented them to Pharaoh.
- 3 Pharaoh said to his brothers, "What is your occupation?" And they said to Pharaoh, "Your servants are shepherds, as our fathers were."
- 4 They said to Pharaoh, "We have come to sojourn in the land, for there is no pasture for your servants' flocks, for the famine is severe in the land of Canaan. And now, please let your servants dwell in the land of Goshen."
- 5 Then Pharaoh said to Joseph, "Your father and your brothers have come to you.
- ⁶ The land of Egypt is before you. Settle your father and your brothers in the best of the land. Let them settle in the land of Goshen, and if you know any able men among them, put them in charge of my livestock."
- 7 Then Joseph brought in Jacob his father and stood him before Pharaoh, and Jacob blessed Pharaoh.
- 8 And Pharaoh said to Jacob, "How many are the days of the years of your life?"
- **9** And Jacob said to Pharaoh, "The days of the years of my sojourning are 130 years. Few and evil have been the days of the years of my life, and they have not attained to the days of the years of the life of my fathers in the days of their sojourning."
- 10 And Jacob blessed Pharaoh and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Pharaoh.
- 11 Then Joseph settled his father and his brothers and gave them a possession in the land of Egypt, in the best of the land, in the land of Rameses, as Pharaoh had commanded.
- 12 And Joseph provided his father, his brothers, and all his father's household with food,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ir dependent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나서 한 행 위는 무엇인가요? (47:7, 10) What did Jacob do after meeting Pharaoh? (47:7, 10)

바로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을 읽어보고 그의 지나간 삶을 상기해 봅시다. (47:8-9)

Read Jacob's answer to Pharaoh's question and recall his past life. (47:8-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 최기환(IL)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일(IL)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나를 통하여 Through me

애굽 땅에 도착한 야곱은 그 나라의 왕 바로 앞에 섭니다. 총리의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그는 가나안의 혹독한 기근 때문에 피신 오게 된 한 부족의 노쇠한 족장일 뿐입니다. 왕의 직위와는 비교될 수 없는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를 축복했다"(47:7)고 성경은 말합니다. 축복은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는 애굽의 막강한 바로의 권세 위에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영적 권위는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하나 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쌓여 가는 것입니다. 축복은 복을 이미 받는 자 가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 사장들"(벧전 2:9) 임을 기억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내 가정과 학교 와 일터가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When Jacob arrived in the land of Egypt, he stood before Pharaoh. He was introduced as the prime minister's father, but he was just a frail chieftain of a tribe who left his hometown due to a severe famine. He was a weak man who couldn't be compared to the power of a king. But the Bible says, "he blessed Pharaoh" (47:7). Blessings require spiritual authority. Jacob knew that his spiritual authority of blessing Pharaoh came from God and that the authority given from God placed above the mighty Pharaoh's authority.

Spiritual authority is not given overnight. It is gradually building up as you get to know God over a long period of time. Blessing is an act that can be done by those who have already been blessed, and we remember that we are God's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1 Peter 2:9). I hope that your home, school, and workplace will receive abundant blessings from heaven through your prayer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5

2022 February

야곱의 이야기

Jacob's stor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야곱이 노쇠하여 병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얼굴까지 본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두 팔을 벌려 그의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남 에브라임을 앞세워 축복하며 아우로부터 겨레가 번영할 것을 기도합니다.

♬ 새552장(통358장) 아침해가 돋을 때

묵상·창세기 48:1-11

통독·창세기 48장

- 1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 2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 3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 4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 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 5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 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 6이들 후의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 7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 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 8이스라엘이요셉의아들들을보고이르되이들은누구냐
- 9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 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 10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 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 11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Reading Insight

Jacob was old and sick. But he thanked God for seeing not only Joseph's face, but also his other sons, and spread his arms out to bless his grandchildren. He puts his second son Ephraim ahead of his eldest son, Manasseh, to bless him, and prays that the tribe will flourish through Ephraim.

Fig. Hymn 552 When the Morning Breaks Anew

Meditation · Genesis 48:1-11

Reading Plan • Genesis 48

- ¹ After this, Joseph was told, "Behold, your father is ill." So he took with him his two sons, Manasseh and Ephraim.
- ² And it was told to Jacob, "Your son Joseph has come to you." Then Israel summoned his strength and sat up in bed.
- 3 And Jacob said to Joseph, "God Almighty appeared to me at Luz in the land of Canaan and blessed me.
- 4 and said to me, 'Behold, I will make you fruitful and multiply you, and I will make of you a company of peoples and will give this land to your offspring after you for an everlasting possession.'
- ⁵ And now your two sons, who were born to you in the land of Egypt before I came to you in Egypt, are mine; Ephraim and Manasseh shall be mine, as Reuben and Simeon are.
- 6 And the children that you fathered after them shall be yours. They shall be called by the name of their brothers in their inheritance.
- 7 As for me, when I came from Paddan, to my sorrow Rachel died in the land of Canaan on the way, when there was still some distance to go to Ephrath, and I buried her there on the way to Ephrath (that is, Bethlehem)."
- 8 When Israel saw Joseph's sons, he said, "Who are these?"
- ⁹ Joseph said to his father, "They are my sons, whom God has given me here." And he said, "Bring them to me, please, that I may bless them."
- 10 Now the eyes of Israel were dim with age, so that he could not see. So Joseph brought them near him, and he kissed them and embraced them.
- 11 And Israel said to Joseph, "I never expected to see your face; and behold, God has let me see your offspring also."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봅시다. (48:4) Let's recall the promise Jacob received from God. (48:4)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 의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8:5-6)

Why does Jacob want Joseph's two sons to be his sons? (48:5-6)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젼교회, 박관우(IL)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김태준(I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의' 하나님 "My" God

구약성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아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등등 한 시대를 역동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구약성서 안에 담겨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에 우리 감정과 생각을 투입시킵니다. 이야기를 통해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야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야기와 '남'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감동스러운 이야 기라고 할지라도, 그게 '남'의 이야기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의 이야기가 그토록 힘이 있는 것은 그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의 실수와 연약함을 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야곱의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자분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To sum up the Old Testament, it is the story of the Israelites: Noah, Abraham, Isaac, Jacob, Joseph, Moses, David, Solomon, etc. The stories of people who lived dynamically in an era are contained in the Old Testament. As we listen to their life stories, we put our emotions and thoughts into them. I see myself through these stories, and I understand others through them as well. You get to know God and experience His presence indirectly. But more importantly, there are two kinds of stories. It is the story of "me" and the story of "others".

There is power in the story of "me". No matter how interesting and moving a story is, if it is someone else's story, it is quickly forgotten. But the story of "me", the story of my life, is alive. The story of Jacob who is about to die is so powerful not because his life is perfect, but because of the God of Jacob who embraced and guided him to this point despite his mistakes and weaknesses. That's the real story of Jacob. Today's readers want to encounter "my"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6

2022 February

본향으로

I will die and join my ancestor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합니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그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장사 지낼 것을 부탁하고 숨을 거둡니다.

묵상·창세기 49:29-33

통독·창세기 49장

- 29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혯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 30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혯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 31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장사하였노라
- 32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혯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 33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Reading Insight

Before Jacob died, he gathered and blessed his sons by calling each one by name. The twelve of them become the twelve tribes of Israel. Finally, Jacob died, asking for a burial in the field of Ephron the Hittite, where his ancestors were buried.

Fig. Hymn 491 I'm Pressing on the Upward Way

Meditation • Genesis 49:29-33

Reading Plan • Genesis 49

- 29 Then he commanded them and said to them, "I am to be gathered to my people; bury me with my fathers in the cave that is in the field of Ephron the Hittite,
- **30** in the cave that is in the field at Machpelah, to the east of Mamre, in the land of Canaan, which Abraham bought with the field from Ephron the Hittite to possess as a burying place.
- 31 There they buried Abraham and Sarah his wife. There they buried Isaac and Rebekah his wife, and there I buried Leah--
- 32 the field and the cave that is in it were bought from the Hittites."
- 33 When Jacob finished commanding his sons, he drew up his feet into the bed and breathed his last and was gathered to his peopl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뒤 마지 막으로 무엇을 부탁하였나요? (49:29-32)

What was Jacob's last request after blessing his sons? (49:29–32)

여러분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 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 혹은 친구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 은 무엇인가요?

If you knew you were going to die soon, what would you say to your family or friends?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샘물연합감리교회, 박미숙(IL)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 조선형(IL)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집으로 가는 야곱 Jacob's home-going

은퇴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어디에서 은퇴를 하는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의료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세금과 생활비가 저렴한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고국으로 역이민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가 있는, 어린시절 함께 놀던 동무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마음 편히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향으로 돌아가 내 조상과 내 부모 곁에 잠드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많은 흑인 교회들은 장례식을 홈고 잉(home-going)이라고 부릅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지요. 야곱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며 우리의 본향을 되새겨 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One of the biggest concerns for people thinking of retirement is where to retire. If possible, they usually move to a place with a good healthcare system, low cost of living, and low taxes. However, for Korean immigrants, there are many cases of reverse immigration to their home country. They want to return to where their parents and siblings reside, where their childhood friends live, and where they want to spend their final years in peace.

Likewise, it was Jacob's last wish to return to his hometown and join his ancestors and parents. Many Black churches call funerals "home-going". It means going home. Looking back at Jacob's last journey, we reflect upon our home-going. As saved children of God. I wish that today we all are longing for heave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7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mathcal{I}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지금 어렵습니까?

최헌목사 올네이션 연합감리교회

때때로 황당한 일이 있어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시편 105:16-23은 요셉에 대한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일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 ¹⁶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 ¹⁷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 18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 19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 ²⁰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여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 21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 22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 23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이여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에 팔렸습니다. 애굽에서는 발에 차꼬를 차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시편기자는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곧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도, 가나안 땅의 기근 도, 발이 차꼬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그의 고통 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좌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에 사용하실 자들을 단련하십니다. 요셉은 괜히 붙잡혀 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족쇄가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으며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셉의 손과 발과 몸을 묶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을 간섭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이방 땅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오랫동안 감옥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나중에 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 셨습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미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며,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며,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 순복할수록 하나님의 예비하신 미래가 빨리 올 것입니다. "아구야, 힘들어라…"라고 징징거리지 말고, 오늘도 인생의 단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정금 같은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은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ваев}·моп

2022 February

두려워하지 마소서

Don't be afrai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야곱이 죽은 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그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였으나 이에 대해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요셉 또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유언하고 숨을 거둡니다.

♬ 새365장(통484장)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

묵상·창세기 50:15-26

통독·창세기 50장

- 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에 울었더라
- 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을 대신하리이까
-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 22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 십 세를 살며
- 23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 24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 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 라하고
- 25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 **26**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과하였더라

Reading Insight

After Jacob's death, Joseph and his brothers buried his body in the land of Canaan, according to their father's request. After that, Joseph's brothers feared retaliation, but Joseph comforted and reassured them of their wellbeing. Joseph died and also desired to return to Canaan.

Hymn 365 Are You Weary

Meditation • Genesis 50:15-26

Reading Plan • Genesis 50

- 15 When Joseph's brothers saw that their father was dead, they said, "It may be that Joseph will hate us and pay us back for all the evil that we did to him."
- **16** So they sent a message to Joseph, saying, "Your father gave this command before he died,
- 17 'Say to Joseph, Please forgive the transgression of your brothers and their sin, because they did evil to you.' And now, please forgive the transgression of the servants of the God of your father." Joseph wept when they spoke to him.
- 18 His brothers also came and fell down before him and said, "Behold, we are your servants."
- 19 But Joseph said to them, "Do not fear, for am I in the place of God?
- **20** As for you, you meant evil against me, but God meant it for good, to bring it about that many people should be kept alive, as they are today.
- 21 So do not fear;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little ones." Thus he comforted them and spoke kindly to them.
- **22** So Joseph remained in Egypt, he and his father's house. Joseph lived 110 years.
- 23 And Joseph saw Ephraim's children of the third generation. The children also of Machir the son of Manasseh were counted as Joseph's own.
- 24 And Joseph said to his brothers, "I am about to die, but God will visit you and bring you up out of this land to the land that he swore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 **25** Then Joseph made the sons of Israel swear, saying, "God will surely visit you, and you shall carry up my bones from here."
- **26** So Joseph died, being 110 years old. They embalmed him, and he was put in a coffin in Egyp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of? (50:15)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 (50:15) What are your brothers afraid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 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 낼 수 있을까요?

What are you afraid of? And how can you get over it?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번 더 손을 내밀어 주는 것 Reaching out one more time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고 장사를 지낸 후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 복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말을 빌려 용서를 구하고. 요셉 앞에 엎드려 종으로서 살기를 간청합니다. 지난 세월 요셉의 형제 들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죄책감과 불안에 떨며 생활해왔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죄책감 에 시달리는 형들을 안정시키고자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 고 17년을 보살폈으나 여전히 두려워 떠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큰 아픔 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의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들과 그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용서를 넘어 악을 선으로 갚은 행위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를 보채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들에 게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한번 더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믿는 자의 마 땅한 자세입니다.

After Jacob's death and burial, the brothers feared that Joseph would retaliate against them. Then they quoted the words of their father, pleaded for forgiveness begging him that they would live as his slaves. Over the years Joseph's brothers had been living in the shadow of their father, trembling with guilt and anxiety. Joseph wept as he listened to his brothers. He laid the groundwork for them to settle down and cared for them for 17 years to lighten their burden. Therefore, he must have felt great pain to see his brothers tremble with quilt and fear.

Joseph once again took the hands of his brothers. He promised to raise his brothers and their children according to God's will. This is an act of repaying evil with good beyond forgiveness. It is the proper posture of a believer to give time to those who are trembling in fear without scolding or reproaching them and to reach out once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IL)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이동근(I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_
7	1	
v	ш	

	_	
1	2	N.
ď	Z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	모	First	Prayer	
----	---	-------	--------	--



한 말씀 0	ne Word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레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kumcdevotion@gmail.com

2022년 2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여기가 곧 벧엘 입니다" I 창세기 28:10-22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내 속도대로 걷기 l 창세기 33:12-20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 창세기 43:1-14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내 조부와 아버지의 하나님 I 창세기 48:1-16



"여기가 곧 벧엘 입니다"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새370장(통455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새383장(통433장) 눈을 들어 산을보니

01 여는 질문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어디서 말씀 묵상을 하시나요? 큐티 하는 장소와 시간이 항상 같다면 거기서 하는 이유와 좋은 점을 나누어주세요. 혹시 매번 장소나 시간이 달라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지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02 본문이해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두려움과 낙담 속에서 집을 떠납니다. 형의 미움 때문에 평생 도망 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신세로 전략한 야곱, 그에겐 꿈, 희망이란 말은 사치일 뿐입니다. 당장 오늘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지 무엇을 먹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집을 나온 첫날밤, 그는 자신을 재워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결국 별 아래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땅과 하늘 사이의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땅을 순찰하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다리꼭대기에 서 있는 하나님을 목격하는데, 그분은 자신을 그의 아비 이삭과 조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야곱에게도 실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곱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 며 모든 족속에게 복을 가져다줄 사람이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확신을 받은 경우는 야곱이 성경 역사에서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 약속은 후에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 모세(출 3:12), 여호수아(수 1:5) 기드온(삿 6:16)에 반복됩니다. 야곱에게 벧엘에서의 사건은 하나 님과의 첫 번째 대면이기에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16)라

는 야곱의 독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도 여기 계셨으며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야곱의 고백을 마음에 담고 힘과 위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03 말씀속으로

- 1. 야곱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층계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13-15절)
- 2.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다음날 아침 한 일은 무엇인가요? (18-22절)

04 삺속으로

- 1.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으신 가요? 반대로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느꼈던 때는 언제 입니까?
- 2.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를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위로를 받고, 어떤 때 부담이 될까요?

05 암송구절 창세기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06 자녀와나눔

우리 눈에 안보이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속도대로 걷기



새390장(통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새391장(통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01 여는 질문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신가요? 내 걸음걸이와 속도는 어떤가요? (자신이 어떻게 걷는지 모른다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02 본문이해

야곱은 형에서와 재회하여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고, 서로 부둥켜안고 목놓아 울며 지나간 삶의 아픔과 괴로움을 씻어버립니다. 이 일 후에 에서는 야곱에게 갈 길을 서두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차분합니다. 그는 어린아이들과 새끼 딸린 양 떼와 소 떼를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을 거라고 말하면서, 형님께서 먼저 가시면 곧 뒤를 따르겠노라고 말합니다 (13). 이유야 그럴 듯하지만 조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화해 이야기가 동행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린 짐승을 염려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것도 사실입니다.

길을 인도할 부하들을 남겨두고 가겠다는 형의 제안도 거절한 야곱은 결국 형을 먼저 보내고 유유히 자기 길을 걷습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형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형편을, 자기의 걸음걸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란부터 가나안까지 수백킬로를 걸어왔습니다.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몇 달 걸린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다가는 지쳐쓰러질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기만의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에도 사람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누구는 터벅터벅, 또 다른 누군가는 총총총, 어떤 사람은 뒤뚱뒤뚱, 팔랑팔랑. 다들 자기만의 속도에 맞게 걷습니다. 혼자 걸을 때야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걸으면 되는데, 문제는 함께 걸을 때입니다. 걸음이 빠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 걷다 보면 걸음걸이

도 이상해지고 금방 지치게 되고, 느린 사람과 걸으면 대화도 늘어지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이라는 길에서 자신만의 속도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 속도를 알면 남들이 나를 제치고 빠르게 지나쳐도 조급해 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걸음걸이나 속도는 그저 주어진 것, 타고난 것입니다. 굳이 빠르게 걸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경쟁하거나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남보다 빠르게 걸어야 (성공해야)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빛나는 것입니다.

03 말씀속으로

- 1. 야곱은 에서와 동행하지 않고 먼저 떠날 것을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야곱은 길을 인도할 부하들을 남겨두고 가겠다는 에서의 제안마저 거절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심정은 각각 어땠을까요?

04 삶속으로

- 1.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곧 세상에서의 성공(형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같다면 왜 같은지 나누어 봅시다.
- 2.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과 지혜를 나누어 봅시다.

05 암송구절 고전 15:10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06 자녀와 나눔

네가 생각하기에 너의 장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창세기 43:1-14**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새337장(통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새347장(통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01 여는 질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손주들, 조카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혹은 아이들에게 과거에 실수했던 경험,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주세요.

02 본문이해

야곱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보면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에 자꾸 집 착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움켜잡고 놓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권 명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지 만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또 라헬이라는 여인을 14년 동안 붙잡았지만 결국 라헬은 베냐 민을 낳다가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애굽 총리(요셉)를 만나고 돌아온 아들들이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 한말을 전하자, 야곱이 노하여서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6).

야곱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집안의 모든 가족들과 어린 손자 손녀들이 배고 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라도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베냐민을 쉽게 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집 착을 빨리 버릴수록 양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을 더 빨리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처음에 장자 르우벤이 설득할 때는 듣지 않다가 결국 유다의 끈질긴 설득으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고 하면서 그는 막내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

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14).

이 순간이 있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가정의 기초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붙잡고, 라헬을 붙잡고, 자식들을 붙잡으며 일평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야곱은 결국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립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버지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의 고백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에 집착을 하고 계십니까?

03 말씀속으로

- 1. 유다가 어떻게 야곱을 설득 할 수 있었나요? 야곱과 유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8-10)
- 2. 야곱이 베냐민의 애굽행을 허락한 뒤 무엇을 했을까요? (14)

04 삶속으로

- 1.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 2. 하나님께 맡겨야 할 염려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보고. 내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05 암송구절 예레미야애가 3:22-2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06 자녀와 나눔

네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뭐가 있니? 그 중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은 무 엇일까?



내 조부와 아버지의 하나님



새321장(통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01 여는 질문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지 나눠봅니다. 처음 자신을 교회로 인도한사람, 신앙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이 있었다면 나눠봅니다.

02 본문이해

본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죽음을 예감하면서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임종을 앞둔 자리여서 그런지 그의 말이 더욱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은 참 애틋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식인 데다가, 죽은 줄만 알았다가 되찾은 자식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장자권을 둘러싼 형 에서와의 갈등, 도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지내야 했던 나날, 치열했던 압복강가의 기도, 에서와의 화해, 라헬의 죽음, 아들을 잃었던 순간의 고통, 그때부터 삶에 짙게 드리워진 그늘,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요셉과의 재회······ 그런데 야곱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48:15)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속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부모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또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께 후손들의 미래를 맡깁니다. 복을 가로채는 사람이었던 야곱은 얍복강 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후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를 만났을 때도 복을 빌어주었고, 열두 아들에게도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저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생을 한껏 살아가게 해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좌충우돌 실수하고 후회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야곱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과 닮아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처절함과 갈급함 속에서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림자처럼 그의 인생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전심을 다하여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03 말씀속으로

- 1. 야곱에게 요셉의 두 아들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 2. 야곱은 지나온 삶을 회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04 삶속으로

- 1.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누구를 축복 하셨나요? 축복해 본적이 없다면 앞으로 누구를 어떻게 축복하고 싶은지 나누어 봅시다.
- 2.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한다면 어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05 암송구절 창세기 48:16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 나이다

06 자녀와 나눔

네가 아빠, 엄마(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기도를 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고 싶니?



This is Bethel (the House of God)

01 Opening Discussion

When and where do you usually meditate on the Word? If the place and time for QT are always the same, please share the reasons for doing it and its benefits. If the place or time is different each time, think about the reason and share it.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fter stealing his brother's blessing, Jacob leaves the house in fear and discouragement. Jacob has been forced to run away for the rest of his life because of his brother's hatred. Words like "dreams" and "hopes" are just luxuries for him. He doesn't know where to stay or what to eat today. Now, on his first night out of the house, he finds no one to offer him a place to sleep and ends up sleeping under the stars. And he dreams. He sees angels ascending and descending the stairs between the earth and the sky, coming out to patrol the earth. And he sees God standing at the top of the ladder, who introduces himself as the God of his father Isaac and grandfather Abraham, and says that the promises given to them will also come true for Jacob.

God says that Jacob will inherit the land, and he will have descendants as many as the dust of the earth. God promises that Jacob will be a person who will bring blessings to all peoples. "I am with you, I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and I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Jacob is the first person in biblical history to be assured that "I will be with you." This promise is later repeated to other leaders of the nation: Moses (Exod 3:12), Joshua (Josh 1:5), and Gideon (Judg 6:16). For Jacob, the incident at Bethel is his first encounter with God, and he is overwhelmed with fear.

After hearing God's word of promise, Jacob's monologue, "Surely the LORD is here, and I did not know" (28:16) resounds in our hearts. Regardless of our circumstances, God was here yesterday and today, and He will be with us tomorrow. It's just that we don't feel His

presence. If you are going through the dark tunnel of your life right now, I pray that you will hold Jacob's confession in your heart and find strength and comfort. "Surely the LORD is here, and I did not know."

03 Into the Word

- 1. What did God say in Jacob's dream and what did he specifically promise? (28:13-15)
- 2. What did Jacob do the morning after he encountered God? (28:18–22)

04 Into our life

- 1. Have you ever felt that "God is not with me?" Conversely, when did you feel that "God is truly with me?"
- 2. The fact that God is always with you gives you comfort, but sometimes it may be a burden. When are you comforted and when are you burdened?

05 Memory Verse Genesis 28:15

"Behold, I am with you and will keep you wherever you go, and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For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How can we know that an invisible God is always with us?



Walking at my own pace

01 Opening Discussion

How much do you walk each day? What is your pace and speed? (If you don't know this, ask people around you.)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Jacob is reunited with his older brother Esau and is dramatically reconciled, embracing each other and crying and wiping away the pain and suffering of the past. After this, Esau tells Jacob to hurry and start the journey. But Jacob is calm. He responds that if you drive too fast, even for just one day, the young children, flock of sheep, and cattle with calves he is traveling with may all die. If you go first, I will soon follow (33:13). It seems logical, but I can't help but be a little perplexed. Because such a moving story of reconciliation does not end with companionship. Of course, Jacob's statement makes sense. It is also true that the heart that cares for small children and young animals is beautiful.

After refusing his brother's offer to leave behind his men to lead the way, Jacob eventually sends his brother away and leisurely walks on his own path. In fact, from Jacob's point of view, he would want to accompany his older brother. But he was well aware of his circumstances, his own pace. So far, Jacob has walked several hundred kilometers from Haran to Canaan. It was a trip that took several months in a time when there were no cars. Therefore, if Jacob follows Esau like this, he will faint from exhaustion. So Jacob walked at his own pace.

Each person has their own personality, even in their gait. Some trudge, some wobble or flutter. Everyone walks at their own pace. It is only when I walk alone that I can walk the way I want to walk. The problem is when I walk with someone. If you walk at the speed of a fast-paced person, your gait will become awkward, and you will tire quickly.

It's important to know your own pace on the journey of life. This is because if you know

your speed, you can walk peacefully without feeling impatient or swaying even if others pass by you quickly. My gait or speed is just a given, innate. You don't have to struggle to walk fast. There is no need to compete or compare. The Christian life is to walk the path God has allowed with gratitude and joy. You don't have to walk faster (successfully) than others to shine. You shine because God has already made you a child of the Lord.

03 Into the Word

- 1. Jacob asks Esau to leave first without accompanying him. Why?
- 2. Jacob even rejects Esau's offer to leave behind his men to lead the way. How did Esau and Jacob feel about it?

04 Into our life

- 1. Does God's blessing mean success (prosperity) in the world? If they are different, how are they different and if they are the same, why are they the same?
- 2. I know there is nothing more foolish than comparing myself to others, but we are constantly making comparisons. Let's share our wisdom and ways to love ourselves without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05 Memory Verse 1 Corinthian 15:10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ward me was not in vain. On the contrary, I worked harder than any of them, though it was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is with me."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do you think are your strengths and your weaknesses?



What we have to hold on to

01 Opening Discussion

What is the most difficult part of your relationship with your children (grandchildren, nieces, nephews)? Or share any past experiences where you made mistakes with your children or about which you have regrets.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f you look closely at the character of Jacob, you may find one peculiar thing. He tends to be obsessed with something. He was the kind of person who somehow never let go of anything that might benefit him. He first seized his brother's birthright by deceiving his father. But in the end, he became a fugitive. He held onto a woman named Rachel for 14 years, but Rachel died giving birth to Benjamin.

When his sons returned from meeting the Egyptian prime minister (Joseph) and told him to bring Benjamin, Jacob became angry and scolded his sons. "Why do you torment me so much by telling him that you have a brother?" (43:6).

We understand how Jacob feels, but if we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all the family members and young grandchildren are hungry. If they don't eat anything now, they may starve to death. Still, Jacob does not let Benjamin go easily. He is obsessed with his beloved son Benjamin. The sooner he lets go of that obsession, the sooner he will not only find food, but also see Joseph whom he loves so much.

At first, he did not listen to Reuben, the eldest son, when he tried to persuade him. But eventually, with Judah's persistent persuasion, he said, "If I lose my children, I will lose them." And then he finally latches on to God. "May Almighty God be gracious to you in the sight of this man, that he may bring back your other brothers and Benjamin; if I lose my children. I will lose them" (43:14).

It took Jacob a very long time for this moment to come. When his father let go of his greed

and obsessions, the foundation of the family was re-established. Jacob's life tells us that in the end it is God who we must hold onto. Jacob, who lived his life fiercely, holding on to the birthright, holding on to Rachel and his children, finally holds on to God. He humbly bows down to Almighty God. "If I lose children, I lose them." You may discover his faith in God hidden behind his confession. This is a difficult confession to make as a father. What are you holding on to? What are you obsessed with?

03 Into the Word

- 1. How was Judah able to persuade Jacob? Let's talk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Jacob and Judah. (43:8–10)
- 2. What did Jacob do after allowing Benjamin to go to Egypt? (43:14)

04 Into our life

- 1. We often confess, "I entrust myself to God, I hold on to God." Let's share what life is like to hold on to God.
- 2. If you have any concerns that we should entrust to God, share them with the group. What do you yourself need to do about these concerns?

05 Memory Verse Lamentations 3:22-23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are the things you value the most and cherish? Which of these would be pleasing to God?



The God of my father and grandfather

Opening Discussion

Share how you first came to believe in Jesus and attend church. Please share who first led you to church or who helped you to have faith.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text is about Jacob, who has lived a troubled life, blessing his son Joseph as Jacob anticipates his death. Because he is nearing death, Jacob's words sound even more earnest. Jacob's heart for Joseph is very tender. Even more so, because he was the child of his beloved wife Rachel, and because he was a child who Jacob thought was dead and then recovered.

Jacob's life had many ups and downs: conflict with his older brother Esau over the birth-right, fleeing, days of having to live like a servant at his maternal uncle Laban's house, the fierce prayers at the Jabbok River, reconciliation with Esau, the death of Rachel, the pain of losing a son, deep shadows cast onto his life, and the incredible reunion with Joseph.

But when Jacob looks back on his past, he realizes that it was all the grace of God. In particular, he confesses that God is "the God whom my grandfather Abraham and my father Isaac served, the God who raised me from my birth until now" (48:15). These words are rooted in the firm belief that the God who touched, cared for, and comforted my parents with an invisible hand is with me now.

Jacob entrusts the future of his descendants to the God who intervened in the lives of his grandfather Abraham and his father Isaac, and to the God who has become his shepherd. Jacob, who was the hijacker of blessings, has now become the one who blesses others since he received the new name, Israel, at the bank of Jabbok River.

He blessed Pharaoh when he met him, and he also blessed his twelve sons. It wasn't just a prayer to make sure everything went well. He empathized with the circumstances and

difficulties given to each of his sons, and blessed them to live their lives to the fullest given those difficulties.

Jacob's life of making mistakes, regretting, and clinging to the Lord is similar to that of all of us. We see in Jacob our own fathers in their desperation to live well. And we see God who knows his weaknesses and walks with Jacob like a shadow.

Jacob, who had lived such a life, is praying with all his heart for his beloved sons on his deathbed. Who can call his life a failure? Although he was lacking in human terms, he sought God's grace more than anyone else and knew the truth that he could not live a day without God's grace. Let us become people who bless others like Jacob. Let us pray and bless our children, neighbors, and church members and become a channel of blessing.

03 Into the Word

- 1. What kind of blessings did the two sons of Joseph receive from Jacob?
- 2. What is Jacob's attitude towards God as he recalls his past life?

04 Into our life

- 1. Have you ever prayed to bless others? If yes, when and whom did you bless? If you have never blessed others, let's share how and whom you would like to bless in the future.
- 2. If you were to bless yourself, what blessings would you say

05 Memory Verse Genesis 48:16

"The angel who has redeemed me from all evil, bless the boys; and in them let my name be carried on, and the name of my fathers Abraham and Isaac; and let them grow into a multitude in the midst of the earth."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kind of prayers do you want to pray for your parents and grandparents?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 3021881 Country : Japan

Serving At: International Seafarers Ministry
Home Country: Philippines, Asia and Pacific
Spouse: Devorah Anne Umipig - Julian

Julian, Ronald

Ronald C. Julian is a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erving as a chaplain with the International Seafarers Ministry in Yokohama, Japan. He was commissioned in October 2013.

Yokohama is one of the busiest ports in the world. The Seafarers Ministry there was set up under ecumenical sponsorship in 1983 to provide pastoral care, counseling, and practical assistance to sailors. The chaplain must be non-Japanese because Japanese nationals are not allowed to go on board visiting vessels. Many of the sailors are from the Philippines.

Ronald Julian is Filipino and succeeds two United Methodist missionaries, the Rev. Lamberto and Angelita Valino, who have retired after leading the ministry for 11 years.

Ronald is a member of the Deparo United Methodist Church in

Caloocan City in the Philippines East Annual Conference. He holds a Bachelor of Science degree in architecture from a university in the Philippines. He has lived for several years in Japan with his wife, Devorah Umipig-Julian, a United Methodist missionary, also from the Philippines. He previously served as a United Methodist Individual Volunteer in Mission.

While he grew up in a Christian home, Ronald says he became a "searcher" during college years, trying out various religious points of view. He had difficulty settling into a profession after school, until he found his way into a secular company with a Christian orientation and a Bible study every Friday.

The first study he attended was on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in Luke, a passage he remembers from childhood, always identifying with the "good" son who stayed home. "During this session, "he recalls, "I had this revelation that I am the prodigal son. I am not the son who stayed. I am the lost son and God was calling me back and wants me to come home....And I so spent more time in Bible study until I accepted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Ronald met his wife in church and accompanied her to Japan. The couple has two sons, Matt and Josh.

Contact Info: rjulian@umcmission.org

사귐의 기도 **/ A**

김영봉목사 와싱톤사귐의교회, VA)

> 아나님과 생각하기

묵상 기도와 침묵 기도를 혼동하는 경우 가 많다. 두 기도는 마음의 상태로 가장 크게 구별된다.

국상(默想) 기도는 마음과 정신 활동을 가장 높은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상에서 강조점은 '상(想)', 즉 생각에 있다. 생각의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침묵을 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하면 말을 해도 상관없다. 반면 침묵 기도는 '상(想)'이 없는 침묵이다. 마음의 침묵과 정신적인 활동의 정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교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한다.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것이 영성생활의 중심이 라는 점에서는 모든 종교가 동의한다. 그러 나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종교마다 약간 씩 다르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묵상 기도 라는 독특한 방법을 실행해왔다.

묵상 기도는 중요한 말씀이나 사건에 대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룩한 사고 활동'을 통해 말씀이나 사건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깨달음을얻으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묵상 기도는'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기'라고 할 수 있다.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의도움을받아 생각하는 것이다.

묵상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 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 님의 임재를 충분히 의식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게 크게 다름을 경험하게 된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영적 훈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초보적인 단계에서도 '홀로 생각하기'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기'의 차이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생각하면 깨닫는 바에 대해 훨씬 강한 확신을 느끼며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다.

묵상 기도는 기도하는 자세로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 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느냐이다.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며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자세이건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추천할 만한때는 산책 시간과 취침 시간이다. 산책은 사고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산책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두고 생각하다 보면 때로 경이로운 깨달음에 이르곤한다. 잠을 청하기 위해 침상에 누울 때 역시 좋은 묵상 시간이다.

내가 나의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시 63:6)

시편 기자는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 묵상했다. 묵상 중에 잠들고, 깨어나서 다시 묵상을 계속했다. 얼마나 좋은 취침 습관인가!

묵상기도와관련해서 전통적으로 유익하다고 증명된 것이 '렉시오 디비나 (lectiodivina)' 이다.

우리 말로 옮긴다면 '거룩한 읽기'(성독) 혹은 '영적 읽기'이다. 이것은 베네 딕트가 사막 교부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창안한 것으로서 성경을 마음의 귀로 듣고 기도로 승화시키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읽기, 묵상, 말하기, 관상의 4 단계가 있는데 '읽기'보다는 '기도'에 중점을 둔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과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렉시오 디비나의 실천은 개념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성경을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듯 극진한 정성으로 수행하는 성경 읽기다. 거룩한 말씀을 음미함으로써 상상력, 기억력, 추리력 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분이 사고하고 느끼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 이해와 그에 대한 응답이 단일한 소망, 단일한 낱말로 단순화되면 대화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데 도달하게 된다.(카톨릭 영성가 '토머스 키팅')

휴(Hugh)는 렉시오 디비나를 적용할 수 있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연의 책, 경험의 책 그리고 성경책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은 물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묵상의 대상이 된다.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데 적합한 것이면 무엇이든 묵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는 문제는 영성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영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거짓되고 속되고 부정하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한다. 늘 아름답고 선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묵상 기도는 삶의 과정이다.

시편 1편에서 말하듯 복 있는 사람은 늘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우리의 삶을 나무라고 한다면 묵상은 시냇물 같은 역할을 한다. 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늘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시절을 좇아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가 시냇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묵상 기도는 이처럼 중요하다. 우리 삶이 거룩한 묵상으로 가득 채워지고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는 복이 넘치기를!(시 19:14) 그리하여 우리 삶이 늘 신선한 생명력으로 충만하기를!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COVID 19 이라는 새로운 광야를 지나며

서동호 권사 밸리연합감리교회, CA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COVID 19'라는 새로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생활이라는 사실도 잊고 그저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나마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으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그런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누울 자리도 없는 광야로 내몰으셨습니다.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 구름기둥과 불기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 광야!

요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은 그저 필요해서 다니는 곳,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을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COVID 19'라는 광야를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바쁘기만 살아왔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부터 우리를 집으로 불러 들이셨습니다. 잠시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봉사와 현신에 지쳐 가는 영혼, 하나님 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던 주일 예배... 이제는 집에서, 오직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관계를 회복하라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집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하십니다. 다 커버린 자녀라고, 사춘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라며 소홀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모두 한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밥 먹고, 같이 산책하며, 서로를 이해하라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힘든 광야를 같이 손잡고 지나가야 한다고....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소중한 가족이기에...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 시키는 곳입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준비 시키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을 의심한 사람,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을 걸러 내셨습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시듯,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골라내시고, 인도하시고, 준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엘리야도, 야곱도,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 시키시려고 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시라 하십니다. 알곡이 되 게 하십니다. 새 힘을 얻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 가라고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퀻랜틴 일년의 급성장

하주연성도_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NY

나는 축복받은 자임에는 틀림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알고 감사할수 있기 때문이다. 7년 전,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다. 그 이전 5년 정도의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안에 있는 많은 사건 사고에 대한 의문과 의심들이 크게 호기심으로 번져 나갔던 시간이었고, 그동안 궁금해해보지도 않았던 성경을 열게 했던 시간이기도 했다. 나와 사귐이 있게 하신 사람들과 The Stanger on the Road to Emmaus by John R. Cross로 공부하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수많은 질문들에 답을 찾아 나갔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씩 알수 있게 나의 이해의 폭을 넓히셨다.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미국교회를 거쳐서 나는 교단이 있는 한인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세례를 받았다. 교회를 통한 세례 이후의 삶과 동시에 교회 밖(= 가정과원이의 동선이 닿는 곳)에서의 삶은 더 큰 고난으로 준비된 듯했다. 내게 꿀송이와 같이 단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과는 어쩌면 이렇게도 큰 갭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아직현실로 느껴지지 않은 것인가? 아직 믿음 없는 남편의 말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내가 만들어낸 나의 현실 도피처일까? 그간 내가 마주하게 된 의혹과 좌절의 시간

을 지나며 마치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막연하게 나에게 맞는 온도가 스스로 되어지기를 바란 듯했다. 내게 값없이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는 지금의 내가(new me) 과거의 모든 나의 죄(old me)를 진동케 한 것일까? 세례받은 후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부딪히는 어려움은 계속되어 왔으나 나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최고점은 작년 이맘때부터 코로나의 1년 동안에 가장 극에 달했다.

원이가 커가며 원이의 문제도 함께 자랐다. 마일드 자폐를 갖고 있는 17살 첫째 아들 원이는 꾸준히 나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해 왔지만 지난 코로나 일 년의 시간은 그어느 해 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긴장도와 빈도수가 함축되어 몰려왔고 나를 눌렀다. 감사하게도 힘에 겨웠던 나의 코로나 일 년은 원이의 17년간의 시간들을 다시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이 있고/없음 만큼의 변화만큼이나, 원이의 있고/없음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수가 없는 나의 한 일부분이었다. 원이로 인하여 시작된 나의 인생 가운데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 질문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이었고, 원이 문제가 커지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믿음도 함께 커져야만 했다.

원이 6살때 부터 만나온 주치의는 원이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Anxiety and Attention disorder을 위한 약을 쓰자고 권유했다. 나좀 편하자고 어린 아들에게 약 먹이는 것 같고 거북함이 있어서 거절을 해왔다. 하지만 원이가 초등학교를 마칠 즈음에, 발달 연령에 맞는 학습과 사회성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때, 특히 사춘기에 배움 없이 그 시간들이 지나가 버릴 수 있으니 약을 써서 학습과 정상적인 발달 습관에 도움을 주자는 권유를 또 받고 약을 안 먹이고 싶은 엄마 마음만으로 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은 그의 '의'대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고 나의 어떤 선택도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힘든 지금의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낭비가 되지 않게 기도했다.

큐티 식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약을 찾는 과정을 나눴다. 하지만 원이 나이에 맞는 교육은 시작도 못한 채 원이에게 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 중학교 삼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소요되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약이 있고 약의 반응을 지켜보지 않고는 원이에게 잘 맞는 약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원이 body system에 약을 넣을 때와 빼낼 때에 각각의 약은 5-7일간의 시간을 요구했고 한 달 이상 약의 dose를 올려가며 약의 반응을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관찰해야 했고 원이에게 어떤 side effect 가 보여 지는지 체크하며 계속 약을 바꾸어 나가야 했었다.

3년 만에 맞는 약을 찾고 좀 나아진 고등학교 시간을 기대했으나 10학년 봄에 Track and Field(육상)를 하면서 운동 친구들과 함께 vaping 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을 믿지 못하는 내게 교장은 원이가 vaping하며 donut 연기를 만드는 동영상을 보여줬다. 연기로 능숙하게 도넛을 만드는 원이는 이미 일 년 정도는 족히 vaping 했던 것 같았다. 원이를 여기저기 데리고 바쁘게 다녔던 과외활동을 모두 중단했다. 나도 지쳤고 원이는 학교로부터 정학 당했으니 일주일 동안 집에 가둬놓고 답답함으로 벌을 주며 다시는 vaping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원이는 육상 운동 친구들로부터 이것저것에 대한 유혹을 받아들였던 것 같고. 11학년 때에는 건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

워낙에 원이가 내 말에 발끈 화를 잘 냈지만 운전하는 중에 나의 핸들을 꺾어 차를 종잇장같이 구겨 놓을 줄은 몰랐던 어느 금요일 저녁에 난 교통사고는 큰 충격으로 또다른 다리 떨림이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학교 문이 닫힌다는 말은 나를 더 기막히 게 했다. 그래도 11학년 Track and Field 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를 닫게 되어 원이는 육상 운동 친구들과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며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려 애썼다. 팬데믹으로 인한 비즈니스 폐쇄로 거라지에 안에 있는 차는 고칠 수도 없이 한 달 이상이 흘렀다. 차사고로 시작된 팬데믹은 우리

가족에게 수많은 사건사고들을 연이어 쉴틈 없이 가져다주었다.

해결할 틈도 없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분노는 가족 개개인 모두에게 있었다. 이것은 마치 지뢰밭의 지뢰 같아서 서로의 한 마디 실수로도 그 분노는 곧장 터졌다. 언제나 전쟁 중이였고 행여 잠잠할 땐 마치 전쟁을 기다리는 휴전 상황의 시간과 같았다. 1년 사이에 경찰이 집에 두 번 왔었고, 원이가 저지른 일로 교회 변호사 분과 상담도 했고, psychologist, psychiatrist를 수도 없이 만났고 새로운 약도 첨가했다. 소아정신병원 입원도 zoom으로지만 입원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사고 대처일뿐 장기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우리를 아는 다른 여러 사람에게 도움과 상담을 요청할수록 나는 아이를 잘못 키운 엄마로 정죄 되는 것 같았고 내 안의 상처는 더 커질뿐이었다. 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도움은 아무리 그 분야의 professional이라해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새삼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경험한 것만 안다.

가족 모두 24/7 집에 갇혀서 서로 거리를 두었다. 우리는 밥때에도 한곳에 모여 먹지 않았다.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학교가 다시 열기세가 없게 되자 나는 두 아들들과 한국에 갔다. 2주 쿼랜틴한다 해도 상관없었다. 그냥 쉬고 싶은 맘만 있었다. 4주 일정으로 한국 엄마 댁에서 인스턴트 음식 먹고, 포장 배달 음식 먹고 하며 아무 걱정 안하고 누워 있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 2주간은 아무 데도 갈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도 아니까 여기저기 데리고 안 가도 되고… 나만 생각하고 진정 쉴수 있었다. 2주 쿼랜틴하고 나머지 2주는 시부모님 댁도 가고 친구들도 몇 만나고 내 맘 내키는 대로 시간을 쓰고 왔다. 한 달 동안 그간 쌓였던 피로를 정말 많이 덜어낼수 있었던 쉼이었다. 막연하지만 원이가 아트스쿨 가겠다고 하니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하고, 11월부터 대학 원서를 써야 했으므로 아쉽지만 그냥 계획대로 미국에 돌아왔다.

운전과 그림은 자식한테 가르칠 수 없나 보다. 딸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칠 수 없다

던 바이올린 전공한 동생 생각이 났다. 아트 전공을 한 엄마지만 원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일단 엄마가 입을 열면 그림 그리던 연필, 붓을 놓고 일어나 가버리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엄마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도 원이에게 가까운 목표가 있음에 감사하고 원이와 함께 각자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말을 아끼고 각자의 그림을 한 번에 한 시간 이상씩 진지하게 그렸다. 한 가지 still life를 놓고 나는 원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대로 그려서 옆에 놓아두고 자리를 떠서, 원이가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시 가서 다음 단계를 그려놓고..를 반복했다. 원이는 나에게 귀를 열어주지는 않았지만 눈은 열어주었다. 나날이 발전하는 원이 그림에 놀랐고, 더 일찍 그림을 시작하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생기기도 했다. 항상 그림을 그려왔던 원이가 언제나 주제 삼았던 독특하게 잔인한 그림(다양한 형태의 지옥을 많이 그려왔다)을 내려놓고 still life를 보고, 스스로 빛과 칼라를 해석하고 평면으로 옮겨 형태와 색을 찾아가며 평안을 찾는 듯했다. 여름 내내 집안의 이것저것들을 여러 medium으로 그려봤다.

각각 여러 학교들이 원하는 대로 원서 날짜를 맞춰 넣으며 다시 원이의 날카로움이 보여졌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찾아지는 평안함이 놀라울 뿐이었다. 자폐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완성된 그림을 그려서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결과만이 강조되어지고 당연시되어지는 것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우리안에는 창조의 본능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끌어내어 줄 수 있다면 창작 행위 자체를 즐길 수 있으며, 과정 자체가 이미 완성이 멋지게 이루어진 아트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 사춘기 자폐아이들을 돕는 미술치료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원이를 17년 돌보며 자폐를 알게 하셨고 내게 깨달음을 주셨으 니… 나와 같은 형편의 가족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범한 아이들도 힘 든 사춘기 때가 자폐 아이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듯하다. 특히 자폐 아이들의 엄마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환자 보다 환자 가족이 더 힘들다는 것을 나는 안다. 원이를 보면서 자폐아이들은 사춘기를 잘 넘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신기했던 나의 경험을 다른 자폐 아이들 엄마들과도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에 Art Therapy를 공부하고 싶어졌다. 여름에 들을 첫 수업, Psychology 101을 신청했다.

원이는 아직 원서 넣은 아트스쿨로부터 Admission 받지 못했고, 팬데믹 전후로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는 없지만, 엄마인 나는 안다. 팬데믹은 나에게 다시 그림을 그리게 했고 이것으로 원이를 더 알게 되었고 돕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나와 같은 형편의 가족들을 돕고 싶은 마음까지 갖게 되었으니 말이다. 나의 고통으로 배워진 것들로 원이만 자라게 돕고 또 독립하게 돕고 하면서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17년의 배움과 내가 한때 즐겁게 공부했던 아트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형편의 이웃들을 돕게 된다면… 이것이 내가 그동안 배워 알아 왔던 하나님의 섭리이고, 내가 겪었던 고통이 낭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고통 속의 이웃들을 돕게 되는 것이다. 나의 17년은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돕는 행위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니… 가슴 벅차다. 나의 힘들었던 17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이유가 있어지는 것이다. 내가 할수 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의 순종인 것이다. 시작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가슴 벅찬 마음이 소망이 된다.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레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워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66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9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하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백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남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네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알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울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울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l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과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Kentucky(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징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백형두, 612-859-5882)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u>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u>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리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트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멜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민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포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면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면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Texas(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박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삼정일, 254-526-3993) 쌘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산정일, 254-526-3993) 쌘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선,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톤사귐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톤하인교회(김영휴,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괌)

광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2/01			2022/02			2022/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창세기	1	01	창세기	27	01	출애굽기	1-2
02		주일	02		28	02	Ash Wed.	3
03		2	03		29	03		4
04		3	04		30	04		5
05		4	05		31	05		6
06		5	06		주일	06		주일
07		6	07		32	07		7-8
08		7	08		33	08		9-10
09		주일	09		34	09		11-12
10		8	10		35	10		13
11		9	11		36	11		14
12		10	12		37	12		15
13		11	13		주일	13		주일
14		12	14		38	14		16
15		13	15		39	15		17-18
16		주일	16		40	16		19-20
17		14	17		41	17		21-22
18		15	18		42	18		23-24
19		16	19		43	19		25
20		17	20		주일	20		주일
21		18	21		44	21		26
22		19	22		45	22		27
23		주일	23		46	23		28
24		20	24		47	24		29
25		21	25		48	25	•	30-31
26		22	26		49	26		32
27		23	27		주일	27		주일
28		24	28		50	28		33-34
29		25				29		35-36
30		주일				30		37-38
31		26				31		39-40

2022/04			2022/05			2022/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마가복음	1	01	시편[-][주일	01	레위기	1
02		2-3	02		1-2	02		2
03		주일	03		3-5	03		3
04		4-5	04		6-7	04		4
05		6	05		8-9	05		주일
06		7	06		10-12	06		5
07		8	07		13-16	07		6
08		9	08		주일	08		7
09		10	09		17-18	09		8
10	고난주일	주일	10		19-21	10		9
11		11	11		22-24	11		10
12		12	12		25-27	12		주일
13		13	13		28-30	13		11
14		14	14		31-33	14		12-13
15		15:1-41	15		주일	15		14
16		15:42-27	16		34-35	16		15
17	부활주일	주일	17		36-37	17		16-17
18		16	18		38-39	18		18
19	고린도전서	1	19		40-41	19		주일
20		2-3	20		42-44	20		19
21		4	21		45-48	21		20
22		5-6	22		주일	22		21
23		7	23		49-50	23		22
24		주일	24		51-53	24		23
25		8-9	25		54-56	25		24
26		10-11	26		57-60	26		주일
27		12	27		61-64	27		25
28		13-14	28		65-67	28		26
29		15	29		주일	29		27
30		16	30		68-69	30		4
			31		70-72			

2022/07			2022/08			2022/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시편III-V	73-75	01	민수기	1-2	01	로마서	1
02		76-77	02		3-4	02		2
03		주일	03		5-6	03		3
04		78	04		7	04		주일
05		79-81	05		8-9	05		4
06		82-83	06		10	06		5
07		84-87	07		주일	07		6
08		88-89	08		11-12	08		7
09		90-91	09		13-14	09		8
10		주일	10		15	10		9
11		92-97	11		16	11		주일
12		98-102	12		17-18	12		10
13		103-104	13		19	13		11
14		105	14		주일	14		12
15		106	15		20	15		13
16		107-108	16		21	16		14
17		주일	17		22	17		15
18		109-112	18		23-24	18		주일
19		113-118	19		25	19		16
20		119:1-56	20		26	20	고린도후서	1-2
21		119:57-112	21		주일	21		3
22		119:113-176	22		27	22		4:1-5:10
23		120-125	23		28	23		5:11-7:1
24		주일	24		29	24		7:2-16
25		126-132	25		30	25		주일
26		133-137	26		31	26		8-9
27		138-140	27		32	27		10
28		141-143	28		주일	28		11
29		141-143	29		33	29		12
30		144-146	30		34-35	30		13
31		147-150	31		36			

2022/10			2022/11			2022/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신명기	1	01	여호수아	1	01	마태복음	3-4
02		주일	02		2	02		5
03		2	03		3	03		6
04		3	04		4	04		주일
05		4	05		5	05		7
06		5-6	06		주일	06		8
07		7-8	07		6	07		9
08		9	08		7	08		10
09		주일	09		8	09		11
10		10-11	10		9	10		12
11		12	11		10	11		주일
12		13-14	12		11	12		13
13		15	13		주일	13		14
14		16-17	14		12	14		15
15		18	15		13	15		16
16		주일	16		14	16		17
17		19-20	17		15	17		18
18		21	18		16-17	18		주일
19		22	19		18	19		19
20		23	20		주일	20		20
21		24-25	21		19	21		21
22		26	22		20	22		22
23		주일	23		21	23		1
24		27	24		22	24		2
25		28	25		23	25	성탄절	주일
26		29	26		24	26		23
27		30	27		주일	27		24
28		31	28	요엘	1	28		25
29		32	29		2	29		26
30		주일	30		3	30		27
31		33-34				31		28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회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목회자 기획위원 김진우, 박호현, 방승호, 배연택, 배혁, 조기현, 조선형

이보영, 유혁재, 차세진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히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차세진 목사 (Bayport United Methodist Church, NY)

❖ 주일 칼럼

황창진 목사 (웨슬리안 타임지) 이건희 목사 (남문교회, 한국) 홍인식 목사 (뉴스앤조이) 최헌 목사 (올네이션 연합감리교회, KY)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